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etoday.co.kr

제2660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7월부터 991만 가구 전기요금 오른다 6

성대규 "신한라이프, 다채널 보험의 모델" 10

코스피(15일) 3258.63(+6.50P) ▲
코스닥 997.37(−0.04P) ▼
환율(달러당 원화) 1117.00(+0.3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1.307%(+0.020%P) ▲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시장변화 반영 없이 수십 년째 땜질
"노동제도·관행 포괄적 리셋 필요"

제도, 사회의 발달은 늘 경제, 기술의 발달보다 더디다. 노동시장이 특히 그렇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노동 관련 제도, 관행은 후진적이다. ▶관련기사 4면

경제가 발전해도 한국 노동시장엔 '갈등'만 더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에 신음하지만, 노동단체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로 미뤄졌지만, 정년은 지금도 60세다. 국제통화기금(IMF)위기 이후에는 간접고용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플랫폼노동이 급증했다. 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1953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상당수 '실질적 노동자'가 법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에선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산업이나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현실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제도적 지체가 발생하는 건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며 "한국의 문제는 제도적 지체보단 제도적 지체에 대응해 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용구조 다양화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이익 분배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노사갈등 격화로 갈등비용이 늘고 있지만, 한국 노동법은 임금·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땜질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리세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시장 최대 이슈는 정년 연장과 상병수당 도입이다.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연금제도 개편, 청년고용 확대 등 수많은 사회 문제와 맞물려 있다.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체계인 상황에서 노동비용 증가와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병수당 도입도 간단치 않다. 정부는 4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회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보장대상·수준·기간·재원 등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이 교수는 노사 모두에 '교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은 친노동이냐, 친기업이냐보다는 '몸집이 커졌으니 몸에 맞는 새 옷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 모두 이익을 고수하기보단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갈등 예고한 최저임금위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8월16일, 10월4·11일, 12월27일 쉰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휴일과 겹침에 따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은 대체공휴일로 쉰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요일과 선거일, 국무회의 수시 지정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면 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토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휴일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한 불만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달력상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4일 줄었다.

공청회는 16일 열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석한다. 민주당과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의 의지가 강하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원만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호 기자 uknow@

"네이버 보고 있나" 대장株 된 카카오

첫 시총 3위 등극 '빅테크 빅2' 플랫폼 전쟁 격화

포털과 이커머스, 페이, 웹툰·웹 소설, 음악, 클라우드… ▶관련기사 3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IT(정보통신) 시장에서 서비스 경쟁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다. 한 살 차이인 서울대 동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15일 카카오가 종가 기준으로 주식시장 시가총액 경쟁에서 네이버를 처음 제쳤다. 카카오는 전일보다 1.40%(2000원) 오르며 14만4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시가총액은 64조1478억 원을 기록했다. 네이버 시가총액은 전날과 같은 63조5699억 원으로 카카오에 5779억 원 뒤지게 됐다.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카카오에 내줬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 34조4460억 원으로 9위였으나 불과 5개월여 만에 6계단 상승했다. 액면분할(4월 15일) 이후 시가총액이 15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네이버를 앞섰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핵심 자회사 상장 기대감,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지분가치 상승이 한몫했다.

코스피시총 상위 종목 ※ 출처: 키움증권
(단위: 원, 15일 종가 기준)

순위	종목명	현재가	시가총액
1	삼성전자	8만900	482조9554억
2	SK하이닉스	12만8500	93조5483억
3	카카오	14만4500	64조1478억
4	NAVER	38만7000	63조5699억

두 회사의 맞대결은 시총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글로벌 웹툰·웹 소설, 이커머스 시장을 놓고 양보 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쇼핑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기면서 여전한 지배력을 과시했다. 카카오는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커머스와의 합병을 이뤄내 반격에 나설 태세다.

매출액 격차도 좁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액은 5조3041억 원. 카카오의 4조1567억 원보다 1조1474억 원 많다. 그러나 이베스트 증권 등은 올해 네이버가 6조5000억 원, 카카오가 5조8000억 원의 매출을 각각 올려 양사 간 격차는 7000억 원 안팎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조성준 기자 tiatio@

'메모리·파운드리·네트워크·스마트폰' 사각편대 구축

삼성전자 '5G 초격차' 앞당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칩 위탁생산),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등 사각편대를 구축해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전방위 공략에 나섰다.

D램과 낸드를 결합한 5G용 최신 메모리 반도체를 출시했고, 파운드리 분야에선 5G 최신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5G 장비 시장에서는 주요 국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잇따라 수주 성과를 내고 있다. 나아가 초저가부터 플래그십까지 5G 스마트폰 라인업도 확대 중이다. 세트와 부품, 장비 등 분야를 막론하고 5G 시장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15일 삼성전자는 5G 스마트폰 시대를 주도할 고성능 LPDDR5 uMCP 신제품을 출시했다. 제품은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멀티칩 패키지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과 동일한 LPDDR5 제품을 포함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역시 최신 인터페이스인 UFS 3.1을 지원하는 최고 사양이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폭넓게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패키지는 중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5G 기반으로 제공되는 고해상도 콘텐츠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손영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 상무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급성장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9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력을 갖춘 5G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공정과 비교해 칩 크기는 줄이고, 전력효율은 높인 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공정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5G 통신용 RF 칩을 원칩 솔루션으로 제공해 서브 6GHz부터 밀리미터파(mmWave)까지 5G 통신 반도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D램·낸드 결합 새 메모리 출시
파운드리 최신 공정기술 개발
美·日·英 1위 업체와 장비계약
휴대폰 가격대별 라인업 확대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도 잇따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글로벌 뉴스룸을 통해 영국 다국적 통신사업자인 보다폰 5G 가상화 기지국(vRAN) 분야 핵심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본 최대 이통사 NTT도코모에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수주와 지난해 미국 버라이즌 공급 계약에 이은 쾌거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미국·일본 1위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유럽 1위 사업자에게도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됐다. 글로벌 5G 장비 공급 업체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며 시장 점유율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은 "전 세계 최고의 통신사 중 하나인 보다폰과 협력해 삼성의 앞선 5G 기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성능·기능·신뢰성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며, 5G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만 원대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5G 스마트폰 라인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4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A22 5G'의 영국 시장 가격은 199유로(약 26만9400원)에 불과하다. 8월에는 최고급 사양의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가 5G 모델로 출격한다.

삼성전자는 5G폰 총공세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G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2.7% 점유율로 4위에 그쳤다. 애플이 30.2%로 1위를 기록했고 오포(16.1%)와 비보(14.5%)가 그 뒤를 이었다.

송영록 기자 syr@

6G 일찌감치 뛰어든 삼성·LG

LG, 美 6G 연합 의장사 선정
삼성, 22일 6G 신기술 공개
글로벌 표준 주도권 잡기 속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세대에 이어 6세대 이동통신(6G)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G 기술은 양사가 혁신사업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전장, 로봇 등의 사업과도 밀접히 연관된 분야로 꼽히는 만큼, 표준 선점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CTO부문 이기동 책임연구원(박사)이 지난 3일(현지시간)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 분과 의장(임기 2년)으로 선출됐다.

'넥스트 G 얼라이언스'는 미국통신산업협회(ATIS)가 6G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창립한 연합체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통신 장비,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총 48개 다국적 기업이 참여 중이다. LG전자는 이번 의장사 선정으로 향후 6G 관련된 선행 기술 논의 및 서비스 방향성 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2019년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한 데 이어, 올해 3월엔 글로벌 무선통신 테스트 계측 장비 제조사 키사이트, 카이스트와 6G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6G 협업에 힘쓰고 있다.

김병훈 LG전자 미래기술센터장(전무)은 "5G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핵심 산업을 선도하는 기반 기술로 인식되면서, 5G 이후 차세대 6G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 선점 경쟁이 글로벌화·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준비를 통해 6G 이동통신의 표준화 및 상용화 단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6G 표준 경쟁에 일찌감치 뛰어들었다. 이미 작년 7월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The Next Hyper-Connected Experience)'이라는 비전을 내건 6G 백서를 공개한 이후, 올 3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총회에서 6G 표준화 회의 의장단에 진출했다.

ITU-R는 전파통신 규약을 담당하는 국제 의결기구로 193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현재 2023년 6G 비전 완성을 목표로 국제 표준화 준비에 한창이다.

또한 이달 22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최초로 열리는 온라인 행사에서도 6G 청사진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 측은 행사 안내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의 진화 방향을 소개한다"며 6G 기술 등장을 귀띔했고, 행사 예고 영상에선 '6G'라는 단어가 짧게 노출되기도 했다.

5G 상용화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삼성·LG전자가 6G 기술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4월 중순 정상회담에서 6G 이동통신에 45억달러(5조 300억 원)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5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해 6G 원천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폰은 물론, AI·스마트홈·자율주행 등 미래 사회를 이끌 서비스에 6G 기술이 주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6G 체제 하에선 5G 대비 50배가량 더 빠른 테라비트급 속도, 지연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는 저지연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포털·메신저 넘어 웹툰·이커머스로 전방위 확전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증권업계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광고 중심의 기존 사업 경영은 물론 커머스, 콘텐츠, 테크핀 등 핵심 플랫폼 사업 경영도 잘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에 대한 과감한 의사결정 △플랫폼 중심 신사업들의 분사 및 기업공개(IPO) 추진을 통한 직접적 가치 어필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커머스 분야에서 국내 최대 사업자다. 신세계, CJ대한통운 등과의 혈맹을 통해 세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줄곧 비교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삼성SDS 입사 동기라는 점도 흥미롭지만, 각자가 걸어온 길도 시선을 끌고 있다.

네이버는 인터넷의 관문 역할을 하는 포털 시장의 지배자로서 압도적인 트래픽을 바탕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을 장악해왔다. 반면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현재 반열에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포털과 메신저이지만 최근 금융, 커머스, 콘텐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웹툰

"동남아 웹툰 시장 내가 1위" 양보없는 글로벌 영토 전쟁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웹 소설 경쟁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웹툰 시장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동남아·북미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존심 싸움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로가 동남아 웹툰 시장 1위라고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카카오가 카카오웹툰 출시 직후 태국과 대만에서 웹툰 1위에 올랐다고 발표하자, 네이버는 매출과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네이버웹툰이 1위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대만에서 MAU(월간 순이용자 수)가 12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69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태국과 대만은 각각 350만 명, 150만 명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구글플레이 만화 앱 기준으로는 3개 국가에서 모두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웹툰은 현재 10개 언어로 100개국 이상에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웹툰 사업을 재편한다. 글로벌 웹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을 결합한 '카카오웹툰'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의 인기도 높다. 카카오웹툰은 태국과 대만에서 다운로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7일 출시한 태국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만화' 분야 1위, 애플 앱스토어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2위에 올랐다. 9일 론칭한 대만 역시 '만화' 분야 1위와 함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넷플릭스 다음인 6위를 차지했다.

이커머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급부상 카카오, 합병 전략으로 맞대응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공을 들이는 캐시카우는 바로 커머스 분야다. 커머스는 신세계, 롯데 등 기존 유통 공룡과 더불어 쿠팡 등 신규 강자들이 등장하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은 많은 이용자와 다양한 중소상공인(SME), 브랜드들이 서로 연결되며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쇼핑 검색에서 결제로 이어지는 구매와 판매 흐름을 매끄럽고 완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 브랜드스토어, 쇼핑라이브 등의 판매자 툴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관계형 커머스'라는 독자적인 이커머스 분야를 키워가고 있다. 카카오커머스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며 소비가 대거 온라인으로 몰리며 시장의 강세가 이어졌다. 카카오커머스의 2020년 거래액은 전년 대비 64%가량 성장했다. 특히 선물하기나 메이커스 서비스의 경우 각각 52%, 60% 성장하며 호조를 보였고, 쇼핑하기의 '톡스토어'는 전년 대비 292%의 눈에 띄는 신장세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최근 성과도 눈부시다. 14일 기준 카카오메이커스의 누적 거래액은 무려 4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11월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몸집 불리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카오는 4000개 파트너를 보유한 테크 기반 여성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인수에 이어 카카오커머스와 다시 합병한다. 카카오커머스가 분사한 지 3년 만이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쿠팡 등 경쟁사와의 점유율 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신무기 카카오페이 '금융플랫폼' 안착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결제부터 배송, 반품, 교환, 포인트 적립, 충전 등이 모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가입자 수는 약 2800만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SME에게는 더 많은 구매자와 연결해 주는 효율적인 결제 솔루션이자 간편한 주문, 배송관리 및 고객관리, 매출 분석 툴로서 이들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4년 9월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일상에 필요한 모든 금융을 아우르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결제와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 지불결제와 관련한 서비스로 플랫폼의 기반을 다진 뒤 투자·보험·대출·자산관리 등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국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출시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의 이용 규모도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는 3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5명 중 4명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속 성장 후유증' 노사 갈등, 해결 과제도

네이버, 카카오가 커머스, 콘텐츠 외에도 음원,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속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은 고민거리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사 문제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속 성장보다 과실을 충분히 나눠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조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사고 등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카카오가 시총 3위로 뛰어올랐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저력을 무시할 순 없다"면서 "사업 부문에서의 경쟁만이 아니라 최근 불거진 노사 문제의 해결 역시 두고 봐야 할 이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상병수당 도입 논의

OECD 韓·美만 시행 안해
코로나 사태로 도입 급부상
연 1.7조 재원 마련 숙제로

누구나 아프면 소득을 보장해 줘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했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연간 최대 1조7000억여 원에 달하는 상병수당 이행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가가 소득을 보장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업무 외 유급·무급병가 보장 규정이 없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상병수당 도입 요구 목소리가 대두됐지만 긴 세월 동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들이 질병을 얻게 되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소득감소 때문에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4월부터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뤄지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이 정식 도입되려면 풀어야 과제가 있다. 바로 재정 확보 문제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연간 8055억~1조7718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가 국고 지원을 대폭 늘리거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해 향후 국민적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 원)을 사용하면 상병수당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 업무 외 상병수당 인정에 대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생계비 고려해 1만원 이상" vs "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최저임금 노사 신경전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가구생계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정부는 수출 급증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4.2%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해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2018~2019년 최저임금 30%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재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 누적된 그간 손실 여파를 만회하기 위해선 상당 소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사실상 동결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 정부가 2018년부터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원)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것이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오른다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한시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지속할 전망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일자리 30만개 감소"

한경연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활용, 일자리 감소 규모를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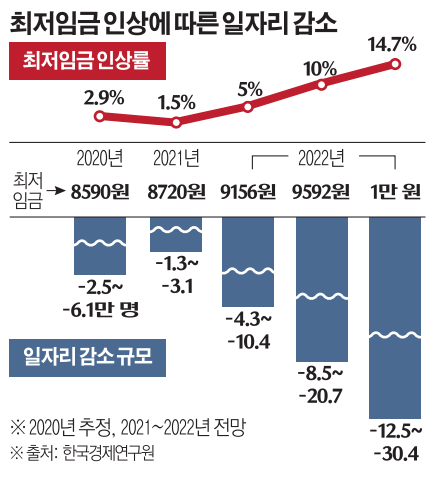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일자리가 무려 15만9000개나 줄었다. 10.9% 인상됐던 2019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27만7000개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2018년에는 음식·숙박 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를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하면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매우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kdy@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연차→직무급제 임금개편 필요

소득공백 메꾸려면

연차따라 임금 올라 조기 퇴출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연금 전 중고령자 위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만 63세,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일치하는 것이 표준적인 모델이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늦춰야 할 것 같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런 표준 모델과 동떨어져 있다.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 60세에 정년퇴직해 9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나면 약 4년간 소득에 공백이 생긴다(정년퇴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후가 불안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는 이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재조준화'라고 한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낸 뒤 돌려받는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조세를 기반으로 한 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급한 대로 정년 직전의 몇 년 동안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정년 운영 사업체 다섯 곳 중 한 곳,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공감대는 높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이라 해도 생산성보다 여전히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정년보다 이른 시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출당하는 현실이 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 즉 연공급 체계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임금피크제가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이며 나이 든 한국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임금을 연차가 아닌 직무(에 필요한 숙련) 기반으로 바꿔 가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연금을 받기 전까지 중고령자의 일자리 제공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후 연금 수급 때까지 막막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라며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인천국제공항공사〉

생뚱맞은 이사장 단식…건보 '제2인국공' 사태되나

고객센터 노조 직고용 요구에 공단 직원들 "역차별" 勞勞 갈등
파업 상담사 1000명 이사장 면담 요청…정규 노조, 대화 거부

김용익(왼쪽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강원 원주시 공단 본관 로비에서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물 밖에서는 민주노총 건보 고객센터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펼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에 공단 노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결해야 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이틀째 단식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14일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라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문제를 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은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본사 로비에서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직원으로, 고객센터 노조는 건강보험 주요기능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공단이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민간업체가 상담시간을 3분으로 제한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질 수 없고, 상담의 질이 아닌 단순 콜 수로 업무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민간이 열람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라며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단은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올해 2월에도 직영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은 고객센터 직접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노노 갈등'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1월 건보공단 노조가 출범할 때 직접고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젊은 직원들이 대거 표를 몰아줬다"며 "고객센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직접고용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직원들마저 반대로 돌아서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규직원 중 일부는 고객센터 노조의 직고용 요구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두 노조가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고객센터 노조 요구를 논의하려면 '민간위탁사 무논의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현재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풀지 않고 있고, 건보공단 노조는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집단의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이사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최고경영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행사를 중단하라 요구하는 것은 반인권적·반노동적 발상"이라며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상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상당히 진전"

분류 인력 투입 등 이견 좁혀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필요한 방송 장비 등을 옮기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파업이 극적 합의 국면을 맞았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15일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회의에서 양측이 상당수 의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16일 타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교섭 직후 언론에 "세부사항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운을 뗀 뒤 "분류 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수용할만한 제안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우체국 택배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우체국 택배를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않음은 물론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의 쟁점이 돼왔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이미 포함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택배노조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우체국은 11일부터 모바일 인터넷과 콜센터 등을 통한 방문 택배(국내 택배·EMS) 접수를 중단했다. 계약 택배의 경우 냉동·냉장 등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했다.

우체국은 파업에 참여한 위탁택배원 대신 일반 우편물·등기·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투입해 배송에 나서고 있다.

민간 택배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송장 출력 제한, 집화 중단 등 조치에 나섰다.

혼란을 겪는 업체는 우체국뿐만이 아니다. 한진택배는 울산과 경기 성남·광주, 경남 거제, 전북 군산과 정읍 등지에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롯데택배는 울산과 경남 창원, 서울 은평구, 경기 이천시에서 파업 영향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창원과 울산, 경기 성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파업 여파로 온라인 쇼핑몰들은 파업에 따른 배송 지연 가능성을 확인한 후 주문할 것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GS25는 경기 성남과 이천, 강원도 춘천 지역의 택배 수거와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가 쟁점이 됐다.

사회적 합의안 시행 시점에 대해 택배사들은 애초 '1년 유예'에서 물러나 '연내 시행'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류 인력 투입과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합의안 적용 시점을 늦춰 달라는 입장이다.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 노조 측은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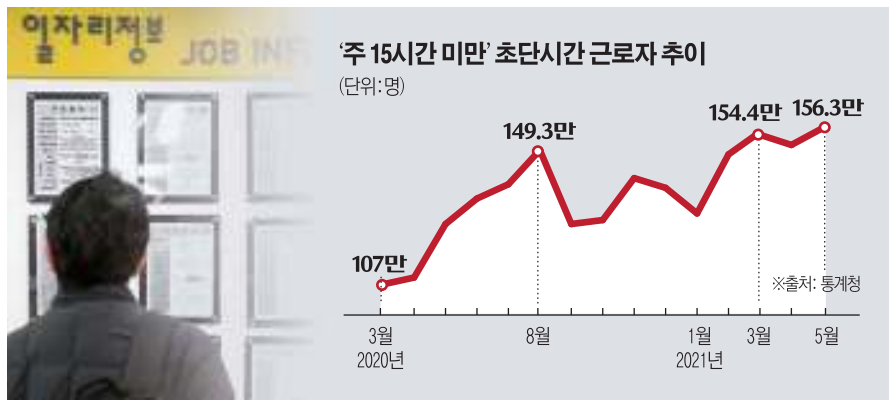
한영대 기자 yeongdai@

〈주 15시간 미만〉

고용 회복? 하루 2~3시간 '초단기 근로자' 156만명 최다

5월 취업자 61.9만명↑ 3개월째 늘었지만 30만명이 '초단기 근로자'

3040은 15개월 연속 감소…추경호 "소주성이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



5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만9000명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초단기근로자가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으로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소위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47만2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7000명)과 5월(30만2000명)에도 크게 늘었다. 전체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폭이다. 또 5월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30대에서 6만9000명, 40대에서 6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3040은 2020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고 있고 40대는 2015년 11월 1만2000명 감소 이후 67개월 연속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13만6000명이 줄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6만7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근로를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2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61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증가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30세 미만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5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백신접종 1300만명 돌파 '오접종 속출' 국민 불안감 커져

이상반응 호소에도 일부 안일한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접종자 수가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백신 접종 목표 달성 뒤에는 부작용도 잇따랐다. 과다·과소 투여 등 오접종을 비롯해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에 대해 일부 병원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K방역'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모(62) 씨는 지난 7일 허리 통증으로 서울 강서구 B 병원을 찾았다. 백신 접종 이틀 뒤였다. 김 씨는 백신주사를 맞은 강서구 A 병원에 이상 반응을 호소했지만 "국가에 신고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만 받았다.

이상 반응 신고는 인과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신고 주체를 '환자를 진료한 의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보다 가족이 먼저 이상 반응을 확인하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이때도 담당 보건소가 병원을 통해 정보를 받는다. A 병원은 질병관리청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B 병원도 완연한 이상 반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 대신 20만 원이 넘는 무통 주사를 권했다. 김 씨는 결국 구급차를 불러 C 병원을 찾았고, 혈액검사 등 이상 반응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괜찮다는 진단을 받고 안정을 찾았다.

B 병원 관계자는 "김 씨가 이전에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데다 백신 이상 반응으로 보이지 않아서 주사를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접종 이후 A·B 병원 모두 근육 통증에 안면 부종까지 호소했지만 이상 반응 신고는 물론 검사조차 안 해 줬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병원이 백신 접종 이후 문제가 생기면 이상 반응 검사를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담당 보건소에 신고한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보건소, 질병청과 사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검사와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상 반응이 아니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도 한 이유다.

일부 병원에서는 '오접종'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 의료진은 5명에게 투여할 분량의 얀센 백신을 한 명에게 투여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하는 일도 벌어졌다.

방역당국은 오접종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홍인석 기자 mystic@

인플레 공포 속 내달부터 991만 가구 '전기료 인상'

전기차 충전요금 등 할인율 축소

연료비 연동제 따른 인상여부 촉각

정부가 다음달부터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연동제)에 따른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등에 제공되던 전기요금 할인율 일부도 줄어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다음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매기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춘다.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일반가구는 7월부터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이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으로 기존 4000원에서 절반으로 할인금액이 줄어든다.

연료비 요금제에 따른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한전은 5월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 3분기 전기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 가량으로 2분기 기준 시점이 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가격 55달러보다 16%가량 상승했다. 연료비 연동제 취지대로면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2분기 전기료는 kWh당 2.8원 덜 올렸다. 이 때문에 3분기에도 연료비 연동제 셈법에 따라 전기료를 책정하지 않으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전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전기료 인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하며 9년 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기료 인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 정부가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미조정액(4.7원)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료가 인상되면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변동 정도와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김대지 "中企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국세청장〉

중기중앙회, 100억 미만 면제 요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세청 국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행정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16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김대지(왼쪽) 국세청장이 15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인도發 델타변이 전세계 확산 "믿을 건 백신 뿐"

英, 봉쇄 해제 한달 연기…화이자·AZ백신 입원율 90%이상 낮춰

전 세계가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 2차전에 돌입했다.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힘입어 정상화 채비에 나섰던 미국과 영국이 델타 변이(인도발 변이) 바이러스(B.1.617.2)의 빠른 확산으로 긴장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21일로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을 7월 19일로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13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델타 변이 감염이) 2주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속에서 '백신만이 살길'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 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대유행을 막아내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 결과도 고무적이다. 영국 공중보건국(PHE)은 지난 4월 델타 변이 감염 환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이 감염될 시 입원율이 각각 96%, 92%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백신도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1급수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 원앙 물총새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천 죽당천, 멸종위기 I종 1급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

깨끗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는 ESG 경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탄소 공개 프로젝트 물 경영 부문 대상 수상

최적의 정화 시스템으로 물 사용량을 줄입니다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및 냉각탑 재이용 시스템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역 수생태계를 지킵니다
수질 자동측정기를 통한 생태계 피해방지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종부세 반대·탈당 거부 어쩌나…”

부동산에 들끓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 들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 차가 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에도 반발이 여전하다.

종부세는 앞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두고 찬반이 나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안인데, 친문(문재인)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의원 63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기도 했다. 종부세 조정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부과 기준 가격은 그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라며 “그런데 상위 2%로 바꾸는 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위 2%에 기존 9억 원 공제기준도 유지하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결판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재안을 마련했으니 표결로 결론지을 거라는 관측이다. 18일 열릴 가능성이 큰 정책 의원총회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면 당의 공식입장이 된다”고 밝혔다.

통상 토론을 통한 합의로 당론을 정하는 의총에서 표결하면 반발이 이어지고 국회 법안 심의·처리 과정에서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는 보통 표결로 정하지 않는다. 소수가 승복하지 않아 잡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억 공제 유지 속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검토

친문 등 “집값 계속 오른다는 전제 깔린 것” 반대

탈당권유 받은 의원들 “사후동의 받는 느낌” 반발

“번복 땐 효과 반감·지도부 리더십 타격” 우려

이런 가운데 탈당 권유를 받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13일 당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을 호출해 ‘사후 소명’을 받았지만, “결론을 정해 놓고 사후동의를 받는 느낌”이라는 불만만 키운 상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소명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 방침을 바꾸려는 조짐을 보인다. 박 의장이 간담회에서 “지도부와 당사자들 간에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여지를 남겨서다.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출당 조치를 위해선 의총 결의가 필요한 만큼 18일 의총에서 종부세와 함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번복될 경우 부작용도 따른다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킨다는 애초 기대했던 효과도 반감되고 당 지도부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인 한 의원은 “13일에 지도부에 소명하면서도 이왕 칼을 뽑은 걸 집어넣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번복해 버리면 지도부 리더십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文대통령 “獨 큐어백과 백신협력 강화”

하스 CEO와 화상면담

“글로벌 백신 허브 지지”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제약사 큐어백사의 프란츠-베르너 하스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백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12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의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큐어백의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독일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스 CEO는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화상면담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큐어백사의 안토니 블랑 최고상업책임자(COO)가 배석했다. 큐어백사는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으로도 불린다.

청와대는 “오늘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큐어백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일환 기자 whan@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 등이 총출동했다. 연합뉴스

범여권 총집결 ‘6·15정신’ 한목소리 냈지만…北 ‘침묵’ 일관

이인영 방미일정도 잠정 보류

여권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북관계 경색 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북한의 무응답으로 인해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주자 등 범여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대권주자 중에는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도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도 자리했다.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열고 소통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바로 다음 날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다. 올해 역시 북한 매체는 일절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의 침묵에 21년 전 어렵게 일군 남북 합의 의미가 빛을 바래고 있다. 실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6월 말 방미 일정 또한 남북경색으로 잠정보류됐다. 북한이 한국의 대화 촉구에도 무응답을 보여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대화를 완전 단절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이 6·15 정신으로 돌아가 새로운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 성과도 6·15 남북정상회담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며 “남북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화해와 평화 협력의 길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행사장을 지켰고, 3남 김홍걸 의원과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민심은 시대교체” 하태경, 야권 첫 대권 도전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등 공약 내놔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켜본 후 출마를 다짐했다며 상식적인 정치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등 신선한 다짐도 내놓았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선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 비대면으로만 진행됐다.

하 의원은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저는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고장 난 계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상식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돼 만들고 싶은 나라”라고 얘기했다. 이를 위해 △헌법 정신 실천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법무부 폐지 △K경제 시대 개막 등을 약속했다.

‘돈을 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한다”며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면피하는 대통령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경제 시대를 위해선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 의원의 출마로 야권 대선 주자들이 대권 도전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다. 그 외에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음 달 출마를 고심 중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복당 후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 기자 joooooon@

“따릉이 출근은 쇼”…대전현충원 방명록 놓고 “참 명필”

이준석 공식행보에 견제구 날린 與野

“수술실 CCTV 소극의료 유발” 발언도 비판 잇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이 대표의 모든 움직임, 말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여권에선 연일 이슈가 된 이 대표의 따릉이 출근에 대해선 “쇼”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야권에선 이 대표의 글씨, 표현에 대한 지적도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전날 이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되면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미 의료진 요구로 모든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이 대표 논리대로면 응급실에 설치된 CCTV는 응급실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 행위를 부른다. 주장의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대표가 ‘따릉이 출근’으로 화제를 모으자 여권에선 일제히 “걸어가도 되는 거리인데, 보여주기 식 쇼”라는 비판도 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국회 출입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커녕 국회 정문을 통과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당한 적도 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전철과 버스로 이동하고 있고 전용차도 없고 수행기사도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따릉이를 탈 필요 없다”며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면 10초 거리에 국회 정문, 정문부터 본관까지 걸어서 2분?”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립대전현충원 방명록 문구를 “참 명필!”이라고 조롱하며 “지금 이 젊은이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것으로 아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지속적”vs “일시적” 월가도 의견 갈린 ‘혼돈의 인플레’

BoA·골드만 “금리인상 가능성”
JP모건 CEO “현금 쌓고 있다”
구리·목재 가격 등은 되레 하락
주식·채권시장도 낙관적 상승세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월가 대표 은행 JP모건체이스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현금 축적에 나섰지만, 정작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망과 달리 이미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한 콘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축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우리는 많은 현금과 현금보유능력을 갖추고 있고, 인내심을 더 가질 계획”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차대조표를 보면 5000억 달러(약 559조 원) 현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높아질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 가격 동향
(단위 : 톤당 달러) ※ 현지시간 종가 기준

※출처: 블룸버그통신

다른 월가 수장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모건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CEO는 CNBC의 ‘클로징 벨’에 출연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 역시 별도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한 긴급함이 줄어들고 있다”며 “연준이 현재 수준의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임금이 오르고 고정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인가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가의 전망과 달리 인플레이션 우려의 중심에 있던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목재 가격은 5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 40% 하락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 주택시장도 지난달 둔화했고 구리 역시 사상 최고치에서 내려왔다. 구리는 최근 톤당 1만 달러 아래서 거래되고 있다.

내셔널증권의 아트 호건 수석 애널리스트는 “많은 주요 원자재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보고 있다”며 “이는 현시점에서 공급이 수요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은 다른 시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 S&P500지수는 3주 연속 상승 마감하며 5월 초 이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주 1.43%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날 1.5%대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높지 않다.

블룸버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하진 않지만, 지원책 축소 시점을 고민하는 연준에 계속 인내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며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최신 전망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나토 ‘바이든 反中연대’ 합류

“안보 위협·구조적 도전” 美와 함께 對中견제 공식화

주요 7개국(G7)의 대중 압박을 끌어낸 미국이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도 움직였다. 나토가 처음으로 대중국 견제를 공식화했고 내년까지 이를 반영한 새 전략 개념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과 불화를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들을 껴안으며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어깨를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 30개국 정상들은 이날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규칙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구조적 도전’”이라면서 “중국이 3대 핵전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기를 확충하고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우주와 사이버, 해양 영역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며 “동맹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중국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가 중국을 향해 강한 어조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토의 입장 변화를 두고 대중 포위망 구축을 시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WSJ는 나토 공동성명이 G7보다는 덜 강압적이라고 평가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30개국에 이르는 만큼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견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율에 공을 들였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나토는 군사적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나토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도 60번 이상 언급하며 중국과 함께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서방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을 열거하며 비판했다.

나토는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오래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2년 전과 달리 “핵과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해야 한다”며 직접 거론했다.

미국과 나토는 공동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나토 2030’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전략개념을 수립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토 2030’이라는 새 전략 개념이 수립되면 나토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가장 시급한 도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남아공 ‘다이아몬드 러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남아공 콰줄루-나탈주 레이디스미스 인근의 콰흘라티 마을 들판에서 14일(현지시간)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 사진과 동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자 노다지를 캐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찾은 것이 실제 다이아몬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문가 팀을 보내 성분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콰흘라티/로이터연합뉴스

美 “동맹·개도국에 장비 원조”
‘중국산 5G퇴출’ 당근책 제시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에서 반중국 전선을 구축해 온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중국산 통신장비 배제를 회유하고자 채찍 대신 당근을 들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5G를 둘러싼 중국의 야심 찬 움직임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 시작했다. 화웨이테크놀로지와 중싱통신(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퇴출을 다른 나라에 촉구하기 위해 금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미국 정부 기관은 중부 및 동유럽 등의 동맹국과 기타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을 위해 중국산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5G망 구축 지원 워크숍과 핸드북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에서 5G 도입과 관련된 정치인과 규제 담당자, 전문가 등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영국 등 미국 동맹국이 중국산 통신기기를 규제한 사례를 담은 참고자료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 면에서 지원하는 유인책도 있다. 미국 의회는 중부·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산이 아닌 5G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제출된 이 법안은 초당파 그룹의 지지를 얻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5G 분야에서 동맹국들의 중국산 통신기기 사용을 막으려고 시도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정부에 국가기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국들에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촉구해왔다.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나라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도 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은 이처럼 채찍을 휘두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제각각이었다. 영국 등은 미국에 호응했지만, 독일은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대출이나 교육과 같은 형태의 사탕을 들이밀면서 중국산 공급업체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장려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영국·호주, 브렉시트 이후 첫 FTA 체결

“英엔 CPTPP 기회, 호주엔 수출증가 효과” 협상 1년 만에 윈윈

영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처음 맺은 FTA로,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구상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댄 테한 호주 무역장관은 영국과의 FTA에 합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테한 장관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런던에서 협상하고 합의에 도달했다”며 “두 총리는 하룻밤 새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FTA에 관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의는 일자리와 기업, 자유무역을 위한 승리”라고 평하면서 “두 자유 민주국가가 협력함으로써 성취할 것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은 호주의 15번째 FTA이며 영국으로는 지난해 1월 브렉시트 후 첫 FTA다. 지난해 10월 일본과의 FTA 체결이 있었지만, 이는 기존 협정의 연장선이었다.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RMIT)의 가브리엘 수더 교수는 “이번 거래는 영국과 호주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영국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시작하고 마무리된 최초의 무역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은 1년 만이라는 이례적인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며 “FTA 협상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양국 총리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웨일즈산 양고기와 스코틀랜드산 훈제 연어, 호주산 와인을 먹었다고 전하며 양국 농수산물과 식품 시장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BBC방송은 “이번 합의는 영국이 보다 넓은 협정인 CPTPP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 단계”라며 “정부는 CPTPP 회원국이 되면 농민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영국 축산업계가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앨리스터 잭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은 “FTA 방안에 안전 정치가 있어서 시장이 한쪽으로 휩쓸리거나 가격이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호주 최대 쇠고기 수출업체인 AACo는 “영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오염 부위 제거 후 꿰맨 상처 무조건 수술보험금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별 모호한 '수술 약관' 정리
꿰매기만 하는 '단순 창상봉합술' 지급여부 포함 안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도 상해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간 창상봉합술은 수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약관상 모호해 보험사별 지급 기준이 상이했다. 금감원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이번 판결로 변연절제술을 두고 일었던 보험금 지급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주먹구구식 보험약관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는 변연절제술이 포함된 창상봉합술에 대한 판결로, 단순 창상봉합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조위 신청인은 A보험사에서 종합보험 및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을 가입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창상봉합술에 대해 보험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수술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판결에서 금감원 분조위는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에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것"이라며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대한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이 사건 창상봉합술은 이 사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이 사건 약관상 상해수술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의 이번 판결로 창상봉합술이 수술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일었던 보험금 지급 논란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사들은 창상봉합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르게 해석해 같은 약관임에도 보험료 지급은 다르게 했다.

약관상 수술은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창상봉합술이 수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생체를 절단·절제하지 않은 단순 봉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절단·절제는 없었지만 '등의 조작'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창상봉합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로 향후 보험사의 수술 보험금 지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이 애매한 경우 작성자(보험사)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비자가) 따지면 보험금을 주고, 따지지 못하면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신한라이프, 보험의 새 패러다임 제시" 내달 빅4 생보사 출발

성대규 CEO 내정자 간담회
다채널 보험 비즈 모델로

신한라이프 성대규〈사진〉최고경영자(CEO) 내정자가 "고객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에 충실한, 진심을 품은 보험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에 가장 앞장서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해 탄생하는 신한라이프는 오는 7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15일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한라이프 성대규 CEO 내정자와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장으로 내정된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 그리고 신한라이프 임원 내정자 7명이 참석했다.

성대규 사장은 신한라이프 출범을 맞이해 △회사의 비전과 △주요 경영전략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했다.

성 사장은 신한라이프의 새로운 비전인 'New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 를 소개하며 "향후 다른 회사들보다 한발 앞선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기존 보험업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일류 보험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의 총 자산은 약 71조 5000억 원으로 업계 4위, 당기순이익은 3961억 원으로 업계 2위, 수입보험료는 약 7조9000억 원으로 업계 4위 수준이며, 지급여력비율(RBC)는 314.1%다. 성 사장은 "든든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자산을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라이프는 통합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널 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게 됐다. 2040 고객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오렌지라이프 FC채널과 4060세대에 최적화된 기존 신한생명 FC채널, 아울러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통신판매(TM) 채널, 전화와 대면 영업을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채널, 모바일로 보험을 가입하는 디지털 보험채널까지 갖추고 있으며, 출범과 동시에 채널의 특성에 맞는 총 4종의 신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고객 손안의 휴대폰에서 24시간 동안 모든 보험서비스 제공', '회사내 보험업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디지털 기술 적용'이라는 두 가지 디지털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디지털 조직을 1그룹 4개 부서로 확대 편성하여 디지털과 헬스케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성 사장은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한금융플러스는 대형 GA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시현했고, 베트남 해외법인은 현재, 현지당국의 설립 인가를 획득한 후 내년 본격적인 영업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헬스케어 플랫폼인 하우핏 서비스는 론칭 이후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내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제휴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이러한 회사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담은 브랜드도 공개했다. 브랜드컬러는 양사의 기존 CI 컬러와 완전히 다른 '컨템포러리(contemporary) 퍼플'이며, 그래픽 모티프는 '패스파인더'로 화살 기호를 창의적으로 해석해 브랜드 본질을 시각화했다.

서지연 기자 sjy@

글로벌 원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2021 글로벌 원 신한 자원봉사 대축제'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행사를 통해 제작한 2000개의 태양광 랜턴을 아프리카 오지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용병(왼쪽)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이 증강현실을 활용해 구현한 아프리카 마을을 배경으로 태양광 랜턴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금리 인하 다 좋은 거 아냐?" 금융위원 안일한 발언

금융 인사이트

내달 7일 최고 금리 24%→20%
저축銀 '수익성 악화' 대출 줄이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몰릴 수도

한 금융위원회 위원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일한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달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던 사례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익명으로 기록된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3월 17일에 열렸던 이 회의에서는 최고 금리 인하 안건을 다뤘다. 당시 안건 보고는 금융위 가계금융과에서 맡았다.

문제는 한 금융위원이 최고 금리를 낮출 경우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보고자는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20% 초과 대출 이용자가 239만 명이고, 이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로 약 4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 의원은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대출이용을 축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금리를 낮춘 것은 아주 잘 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제도권 이용의 축소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자가 대출 이용을 줄이는 것은 금리와 관계없이 대출 기간이 끝나서 새로 안 빌렸거나, 자금이 생겨서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B 의원은 "이용자가 아니라 금리를 낮추면 수익성이 안 나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1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에 있어서 법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구성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최훈 한국은행 부총재,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심영 비상임위원이다. 이날 회의에 은 위원장과 도 부위원장은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과 저축은행권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됐다.

중금리대출 수요가 집중된 저축은행업계는 A 금융위원의 발언을 두고 "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등급이 달라지는데 A 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중은행은 보통 1~3등급, 2금융권은 4~6등급이 대체로 여신을 일으킨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리스크는 높게 반영돼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금융회사가 기존에 24%의 금리를 책정했던 대출 이용자에게 2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권을 통해서만 금융 업무를 접했던 분들은 중금리대출, 2금융권을 잘 모를 수 있다"며 "대출 금리 4%포인트(P)차이면 신용등급 7등급인 소비자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해당 신용등급 소비자들에게는 큰 장벽이 또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롯데카드, 10년 장기고객 멤버십 신설

롯데카드가 장기 우수고객 전용 서비스인 'CLUB 10 YEARS+(클럽 텐 이어스 플러스)' 멤버십을 신설하고, 보유한 카드를 한정판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멤버십 대상은 롯데카드 회원이 된 지 10년 이상 된 고객 중 '롯데카드' 또는 '롯데포인트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회원이다. 두 카드 모두 출시 14년이 넘은 상품으로, 오랜 기간 많은 고객들이 꾸준히 찾아온 장수 카드 상품이다.

롯데카드는 대상 회원 중 신청자에 한해 기존 보유한 롯데카드와 롯데포인트플러스 카드를 한정판 디자인이 그려진 카드 플레이트로 교체해준다. 이벤트 신청은 롯데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서지연 기자 sjy@

삼성생명
SAMSUNG
다 다른 인생에
다 맞춘 보험.
같은 나이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모든 당신의 인생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는 인생보험이 되기 위해
다 다른 인생 즐겁게 나아가도록
삼성생명이 발맞춰 갑니다
인생맞춤
인생보험
삼성생명

쌍용차, 첫 전기차 양산 돌입 '지속 가능성' 승부수

'코란도 이모션' 10월 유럽 출격
반도체 상황 고려 국내 판매 조율
내년 출시 SUV 신차 개발 박차

쌍용차의 첫 순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왼쪽). 내년 출시 목표로 개발중인 새 중형 SUV 'J100(프로젝트명)' 스케치 이미지. 사진제공 쌍용차

강도 높은 자구안을 통과시킨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신차 출시에 나선다. 첫 순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을 양산해 10월 유럽 시장에 출시하고, 새로운 중형 SUV를 내년에 선보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E100'으로 개발해 온 첫 번째 전기차의 이름을 '코란도 이모션(Korando e-Motion)'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차명 '코란도 이모션'은 코란도 브랜드의 가치를 계승하며 전기차(EV)와 역동성(Motion)의 조합으로 고객의 감성(Emotion)에 충실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사내 공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글로벌 상표조사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코란도 이모션은 10월 유럽 시장에 먼저 출시된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수출 물량을 우선 생산해 8월부터 선적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수급 상황을 고려해 출시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새로운 중형 SUV 'J100(프로젝트명)'도 2022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J100은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인 '강인하고 안전한 SUV'라는 본질을 바탕으로 정통 SUV 스타일을 추구했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소형 SUV 티볼리 브랜드를 비롯해 준중형 SUV 코란도, 중형 SUV J100, 대형 SUV 렉스턴 브랜드까지 SUV 풀라인업을 구축해 SUV 전문 기업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코란도 이모션을 앞세워 미래를 책임질 중형 SUV 전기차, 전기차 픽업 모델 등 친환경차 라인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자구안으로 생산, 인력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끌어내며 신차 개발에 집중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서 쌍용차 노사는 △최대 2년 무급휴직 △임금 삭감·복지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상 주기 3년으로 연장 △무(無) 쟁의 확약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에 합의했다.

다만, 주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자구안에 대해 충분하치 않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리며 향후 지원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쌍용차 자구안을 언급하며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그것이 충분한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핵심적인 사항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이번 주 중 산업은행 앞에서 정부의 추가 대출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자구안을 이행한 만큼, 정부도 경영 정상화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성공적인 M&A 추진으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업계 트렌드 대응을 위해 신차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는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기아 플래그십 세단 '더 뉴 K9' 출격

쇼케이스 영상 공개·판매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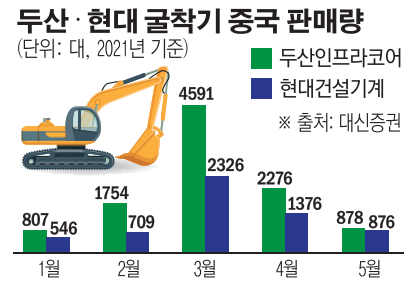
기아가 플래그십 세단 '더 뉴 K9'〈사진〉의 온라인 쇼케이스 영상을 15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디자인은 신차 수준으로 바꿨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에 'V 형상'의 정교한 크롬 패턴을 심어 넣어 플래그십 세단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좌우 후미등을 수평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느낌을 살리는 한편 세련된 분위기도 연출했다. 넉넉한 힘과 정숙성을 갖춘 3.8 가솔린과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3.3 터보 가솔린 총 2개 모델로 운영되며, 모델별로 달리 구성한 기존의 트림 체계를 2개(플래티넘, 마스터즈)로 단순화해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가격은 3.8 가솔린 △플래티넘 5694만 원 △마스터즈 7137만 원이며, 3.3 터보 가솔린은 △플래티넘 6342만 원 △마스터즈 7608만 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K9은 기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로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고객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한 상표 가치를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K굴착기, 中 판매량 두 달 연속 내리막

코로나 극복 인프라 건설 주춤
전년比 두산 59%·현대 5%↓
중동·남미 공략 부진 만회 총력



중국에서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굴착기 판매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뤄진 인프라 건설이 최근 주춤한 데 따른 영향이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 모두 중국 부진을 만회하고자 중동, 남미 지역을 집중 공략 중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달 중국에서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판매량은 878대로 전년(2166대)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전달(2276대)과 비교해도 61% 줄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3월 중국에서 4591대의 굴착기를 판매했다. 1994년 중국 진출 이래 최대 월간 판매 기록이다. 하지만 3월을 정점으로 판매량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현대건설기계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달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은 876대로 작년(923대)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들었다. 전달(1376대)보다는 36% 감소했다. 올해 3월 판매량 2326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굴착기 판매량 감소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에 치명적이다. 양사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굴착기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제품 수요 감소와 계절적 비수기가 맞물린 탓이다. 실제 지난달 중국 전체 굴착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2만2070대에 머물렀다.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 굴착기 월간 판매량은 통계적으로 3월을 고점으로 8월까지 감소세가 지속된다"며 "내달 판매량도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위니아딤채, MZ세대 저격 '컬러팝 전자레인지' 출시

1인 가구 맞춤 원터치 메뉴 적용

위니아딤채는 MZ세대의 생활방식과 취향을 분석해 '컬러팝 전자레인지(20L·사진)'를 15일 출시했다.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색상이 특징이다.

신제품 위니아 컬러팝 전자레인지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MZ세대를 위한 차별화된 밝은 톤의 주황색에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편리 기능을 갖췄다. 1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메뉴 기능을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원터치 키로 구성해 실용성도 높였다.

1인 용량의 즉석밥 또는 국을 빠르게 조리해주는 △혼밥의 달인, 즉석밥·냉동만두 등 냉동 메뉴를 빠르게 해동시켜주는 △해동의 달인, 청결한 사용을 위해 스팀 청소와 탈취를 손쉽게 해주는 △생활의 달인, 그 외 소비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조리의 달인 등을 내세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컬러팝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골고루 빠르게 가열할 수 있는 오목거울의 원리(RRS, Round Reflector System)를 이용했다. 고주파를 식재료에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조리실 후면에 설치된 2개의 거울이 고주파를 고르게 분산, 음식물을 균일하고 빠르게 가열한다.

편리성을 위해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스마트 제로(Smart Zero)' 기능도 갖췄다. 대기 상태에서 2분 이상 제품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방식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대우버스 노사, 해고 철회·공장 재가동 합의

국내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 노사가 1년여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대우버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사 의견일치서'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술직 조합원 90.4%가, 사무직 조합원 79.1%가 찬성표를 던졌다.

의견일치서는 21일 자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근무를 재개하며, 울산공장을 재가동하면서 내년 6월까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공장을 매각하는 방안이다.

9개월가량의 정리해고 기간 밀린 임금은 사 측이 3개월 치를 지급하는 것을 노조가 수용했다. 공장은 재가동하고 잔여 인력이 발생하면 유급 순환 휴직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우버스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영 악화로 사 측이 울산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해외 공장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 지난해 5월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공장 농성을 시작했지만, 사 측은 지난해 10월 울산공장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사 측이 울산공장 매각으로 태도를 바꾼 건 부당해고 판정, 일자리 감소에 대한 지역의 반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매각 마무리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더 프레임'에 담은 몬드리안 명작

20세기 주요 미술작품 23점 추가

삼성전자가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에 20세기 주요 미술 작품 23점을 추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페인 티센 보르네미사 국립 미술관(티센)과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컬렉션에 추상회화의 양대 선구자로 불리는 '피에트 몬드리안'과 '바실리 칸딘스키'를 비롯,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유명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삼성 '더 프레임'에는 '아트스토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 40여 곳 유명 박물관, 미술관 등이 제공하는, 1500점에 달하는 예술 작품을 UHD 화질로 즐길 수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생큐! 애플” LG이노텍, 매출 10兆 클럽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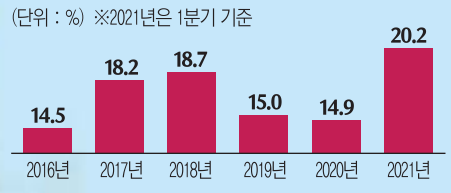
아이폰 판매 작년보다 56% 증가
전장부품 흑자 전환 실적 힘 보태
올 매출 11.6兆·영업익 1兆 추정

LG이노텍 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매출	7조9754	9조5418	11조5870
영업이익	4764	6810	9837

※출처: LG이노텍

LG이노텍 카메라모듈 시장 점유율
(단위 : %) ※2021년은 1분기 기준



LG이노텍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 역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이노텍의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1조5870억 원, 영업이익 983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학솔루션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진 덕이다.

먼저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12 제품 수요 증가가 주효했다. 멀티플 카메라 모듈과 3D센싱모듈 등 고성능·고품질 부품의 판매가 증가했다. 여기에 애플이 LG이노텍의 경쟁사인 중국 ‘오필름’을 공급사에서 제외하면서 LG이노텍의 애플 내 점유율까지 늘어났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증가도 LG이노텍에 도움이 됐다. 4월 누적 아이폰의 글로벌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나 증가했다. 아이폰12 시리즈 가운데 고가 모델인 프로 시리즈의 비중도 55%에 달했다는 점도 LG이노텍의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

LG이노텍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메라모듈 점유율은 20.2%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1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점유율 18.7%를 기록한 이후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전자업계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LG이노텍의 올해 연간 카메라모듈 점유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이노텍은 시장 1위 굳히기를 준비 중이다. 올해 광학솔루션사업 시설투자에 54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2019년 투자액 2821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로 기판소재 사업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5G 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견조한 판매와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용 칩온필름(COF, Chip On Film)의 신모델 공급 확대로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도 흑자전환하며 실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 1분기에 처음으로 흑자전환(영업이익 107억 원)하며 실적 성장세를 나타낸 전장부품은 전기차 시장 성장이 배경이 됐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DC-DC컨버터 등 전기차용 파워부품의 매출이 증가했고, 레벨2 자율주행 시스템(ADAS)용 카메라, 통신모듈 등 관련 부품들이 고른 개선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인 재규어 랜드로버로부터 ‘품질 인증’도 획득한 만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LG이노텍은 2017년부터 재규어 랜드로버에 DC-DC(직류-직류)컨버터를 꾸준히 공급해 왔다. DC-DC컨버터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고압의 직류 전력을 차량 내부 장치에 적합한 저압 직류로 바꿔주는 부품이다.

키움증권은 “하반기에는 전략 고객 신모델 효과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전장부품의 이익 기여와 자율주행 솔루션의 앞선 행보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엔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독주

中시장 제외 점유율 35% 1위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독주를 이어갔다.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중국 CATL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15일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올 1~4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엔솔이 점유율 34.9%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양은 36.0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LG엔솔은 12.6GWH를 차지했다. 이어 파나소닉이 9.7GWh로 점유율 27.1%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3.7GWh, CATL은 3.6GWh, SK이노베이션은 3.5GWh로 뒤를 이었다. CATL은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테슬라 모델3, 푸조 e-2008, 오펠 코르사 등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4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국내 배터리 3사 성장세는 각 사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들의 판매 호조가 주요 요인이다. LG엔솔은 폭스바겐 ID.3, ID.4,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의 판매 증가로 성장세를 나타냈다.

삼성SDI는 아우디 E-트론 EV와 피아트 500, 포드 쿠가 PHEV 판매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였다. SK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 BEV와 현대 코나 BEV, 메르세데스 벤츠 GLE PHEV 판매 증가 영향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김대영 기자 kdy@

2025년 ‘현대차 에어택시’ 뜬다

북미본부사장 “기술 발전 확신, 상용화 3년 앞당겨”

현대자동차 북미권역본부가 2025년까지 에어택시를 상용화한다. 최근 주요 경쟁사가 서둘러 관련 분야에 뛰어든 만큼 목표를 3년 앞당겨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사장은 14일(현지시간) 로이터 주최 미래차 콘퍼런스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어택시 시장을 중요한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에 매우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상용화할 에어택시는 로스앤젤레스(LA) 공항과 뉴욕 존 F.케네디 공항에서 시내 주요 거점까지 승객 5~6명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전기 비행체다.

GM도 이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에어택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파멜라 플레쳐 GM 부사장은 “가야 할 길이 멀다. 2030년이 현실적인 상용화 시점”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규제 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콘셉트 모습.

도요타와 다임러, 중국계 자동차 기업 역시 앞다퉈 스타트업 업체와 함께 플라잉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비행 모빌리티 시장은 2040년에 1조 달러(약 1120조 원) 규모에 달하고, 2050년엔 9조 달러(약 1경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구자열 무협회장, 해운 현장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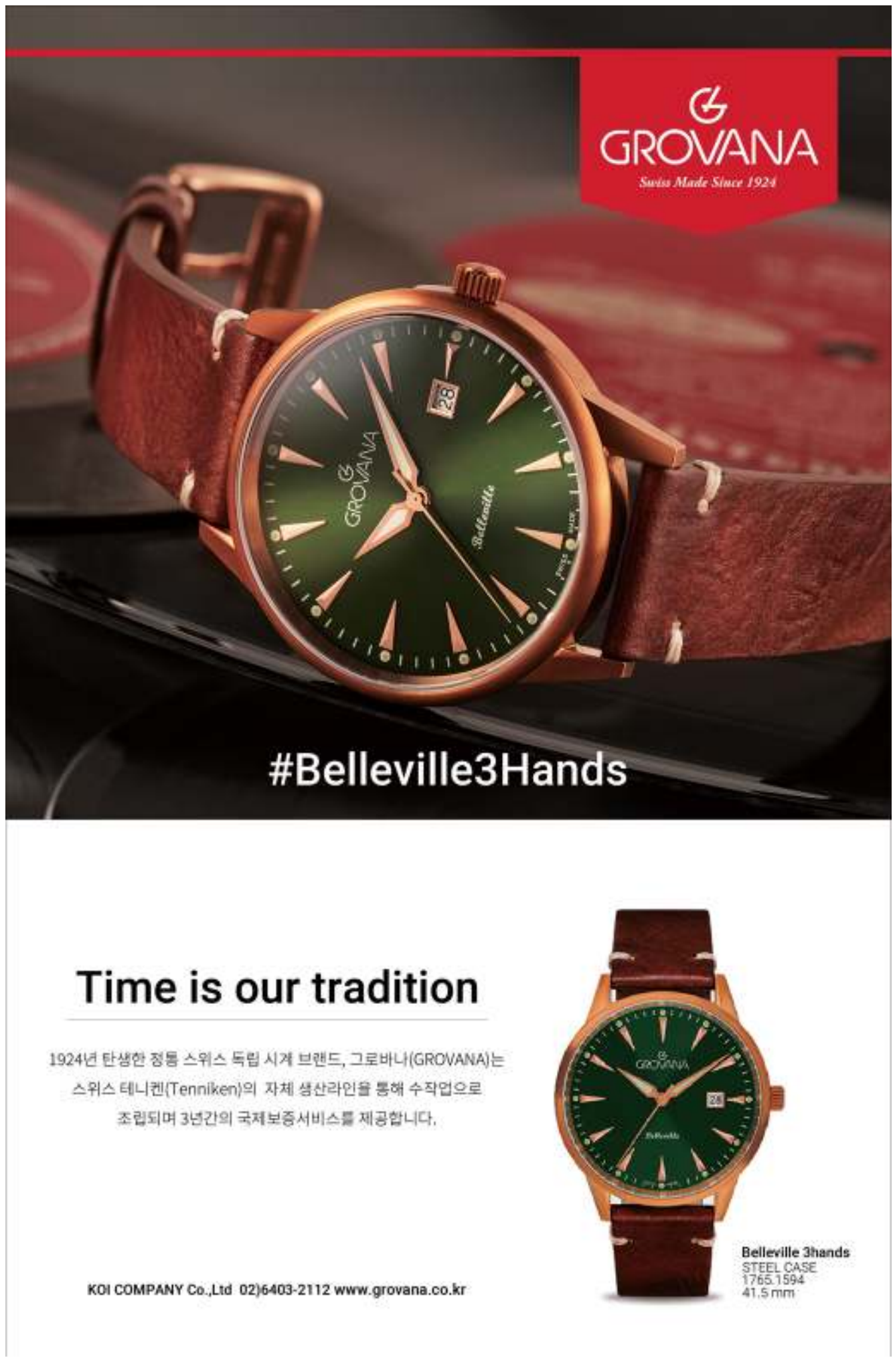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5일 HMM(옛 현대상선)과 고려해운을 방문해 최근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상황을 설명하고 선사의 도움을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해운 대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화주 단체 대표가 직접 선사를 찾아 지원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 회장은 이날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마련 등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적선사들의 다각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그런데도 해상운임 급등, 수출 선복 부족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만큼 선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선사와 화주가 힘을 합쳐 이번의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中企·국회·노동계 뭉쳤다

"원자재 대기업에서 비싸게 사서 대기업에 제품 싸게 납품 현실"
與, 중기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가격 협상 中企 공동대응 허용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네 번째), 진성준(세 번째) 의원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다섯 번째)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싸게 산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싸게 납품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한두 해 이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합니다."

국회가 중소기업이 뭉쳐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기업 교섭권을 보장해 하청 거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15일 개최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도 주최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기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현실적으로 어렵단 호소가 이어져 왔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경우 화학과 철강 등 원자재를 전부 쓰는 업종인데 원자재 가격이 6개월 새에 많게는 두 배, 적게는 6~10%씩 인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화학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네 번이나 올랐다.

홍 이사장은 "원자재를 독과점해 납품하는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고, 협상력 없는 중소기업은 자재를 비싸게 사서 싸게 납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할 수 있다면 제값 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 구조로 바꾸겠단 것이다. 소비자의 범위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해서는 가격 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해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우 의원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연합해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담합으로 간주해 왔다"며 "따라서 중기 협동조합법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간 거래(B2B) 공동행동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행동을 통해 세계적인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제값 받기' 법안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이란 규정을 정면돌파하고자 하는 법안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납품단가 격차는 곧 노동자 간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대기업에 맞선 '을'들이 모인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 주체로서 대접받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KT "광케이블 사고 'AI 닥터케이블'로 크게 줄였다"

공사현장 장애 예상 자동분석
장애 인지 시간 56% 단축
상용화 뒤 251건 피해 예방

도로 공사를 할 때 광케이블을 건들면 어떻게 될까? 단선이 발생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통신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 사업자는 단순히 광 네트워크를 까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가지의 공사 현장에서 광케이블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다만, 단순 관제 시스템만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

KT는 이 같은 한계를 인공지능(AI)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외부통신시설(OSP) 관제 플랫폼 '닥터 케이블'이 그 주인공이다. OPS는 통산 KT 국사 외부에 있는 광케이블, 통신주 등을 뜻한다. 닥터케이블은 광케이블을 지능화를 해서 장애가 나면 인지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장애를 예측하는 지능형 관제 솔루션이다. AI에 'DAS(분포형 음파 센싱 플랫폼)'를 결합한 것으로 올해 4월 실제 현장에 첫 적용됐다. KT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닥터케이블의 상용화 성과를 발표했다.

닥터케이블의 기능은 △선로 장애 관제 △피해 예방 등 크게 두 가지다. 선로 장애 관제 기능은 광케이블 장애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광케이블의 경로, 장애 예상 구간, 공사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표시한다. 올해 4월 상용화해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닥터케이블을 웹이나 모바일에서 띄우면 지도에 수많은 공사장 아이콘이 빨갛게 뜬다. 예컨대 KT 반포 국사로 지도를 확대하면 근처 공사 지역이 아이콘으로 표시돼 있다. 각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사장 이름, 정보 등이 나타난다. 닥터케이블이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경고 표시를 화면에 띄운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장비의 세부 정보, 어떤 케이블의 몇 번 코어가 영향을 받는지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T 관제 요원은 모바일 화면을 보고, 장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한다.

KT는 닥터케이블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선로 장애 인지 시간이 56% 단축했다고 밝혔다. 최기만 KT인프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큰 선로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때 어디에 장애가 발생하는지 장애 위치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곤 했다"며 "닥터 케이블은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짚어준다"고 설명했다.

KT는 4월부터 평택국사 관할 광네트워크 구간에서 '피해 예방' 기능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 기능은 광케이블 주변 음파 신호를 AI로 분석해 공사 상황을 원격 탐지하는 솔루션이다. DAS 장비로 주변 공사 진동을 탐지해 어떤 종류의 공사인지를 AI로 분석한다.

최 연구원은 "굴착 공사, 전신주를 옮기거나 땅을 뚫는 오거(Auger) 등 공사 종류를 분류한 뒤 현장에 있는 요원에게 알림을 준다"며 "알림을 보고 출동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전신주를 옮기는 공사가 이뤄지면 지자체 등에서 KT에 공사 현황을 알린다. KT 광케이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KT가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최 연구원은 "미신고 공사를 자동 탐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KT가 평택 국사에서 7주간 '피해 예방' 기능을 적용해 거둔 성과는 뚜렷하다. 총 420km에 달하는 광 네트워크 구간에서 251건의 중장비 공사 현장 탐지를 했고, 피해 발생 건수는 0건이었다. 탐지한 251건의 공사 중 40%인 100건은 KT에 미리 알리지 않은 공사였다.

KT는 닥터케이블의 적용 분야를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광케이블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다른 OPS 시설까지 확장하고 KT 관제 시스템만이 아닌 공공이나 여타 기업 솔루션까지 넓힌다는 복안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5G 연계 B2C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닥터케이블은 물리적인 측면의 OSP 데이터 분석과 AI 관제 기능을 제공하는데 미디어 플랫폼 AI 관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SW) 측면에서 관제 기능을 제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물리적인 측면과 SW 측면에서 AI 관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며 "적용 분야를 지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LG U+, LG CNS 손잡고 'AI 콜센터' 시장 진출

금융권 6000억 시장 공략

LG유플러스가 LG CNS와 함께 인공지능(AI) 콜센터(AICC·AI Contact Center) 솔루션 시장에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AI콜센터는 금융권 등에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AI로 고객의 요청사항을 쉽게 접수하고, 단순한 해결 방안은 상담원 대신 AI콜센터가 답변을 제공해 상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AI콜센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인식하고(음성인식) △텍스트로 변환된 고객의 문의 사항을 파악해 답변을 찾고(자연어처리) △만들어진 답변을 음성으로 송출하는 기술(음성합성) 등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담아내야 한다.

LG CNS는 이미 국내 금융권에 AI콜센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FCC(Future Contact Center) 사업팀을 신설하고 AI콜센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문을 연 무인매장인 U+언택트스토어에서 AI콜센터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축적했다. U+언택트스토어에서는 유심개통·기기변경만을 지원하는 타통신사의 무인매장과 달리 신규가입·번호이동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해 고객의 문의에 대해 채팅상담, 상담사연결, AI상담 등의 비대면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회사는 먼저 금융권을 대상으로 AICC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금융권만 연 6000억 원가량의 유선 콜센터 시장이 있는데 AI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면 더 큰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연내 금융 용어와 사투리 등 언어적 특성을 AI에 학습시켜 서비스 정밀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AI콜센터 솔루션의 브랜드를 정하는 등 상품화를 위한 작업에도 협력한다.

임장혁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상무)은 "AI콜센터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쇼핑,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폭넓은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권시장을 중심으로 AI콜센터를 확대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지원

21일~내달 7일 대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7월 9일까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소비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곳(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모두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ESG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BIG STEP FOR TOMORROW

QR코드를 찍어
래퍼 래원의
ESG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보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식품업계, 친환경 스타트업 발굴로 'ESG' 동참

CJ제일제당, 10억 출자 스타트업 육성 '프론티어 랩스' 론칭
롯데푸드, 스타트업과 도시락 당일배송… 미래 먹거리 찾아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화두를 넘어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고 있는 ESG 바람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키워드로 부상했다. 특히 식품 대기업들은 비건, 대체육, 친환경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며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스타트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프론티어 랩스'를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으로,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골자다. CJ제일제당은 이를 위해 10억 원을 출자했다. 선발된 기업은 3개월 동안 전문가 멘토링 과정을 거친 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이 운영했던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 '오벤터스'가 상생과 멘토링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프론티어 랩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식품업계가 대체로 푸드테크에 초점을 맞춰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비해 프론티어 랩스는 식품 전반적인 분야뿐 아니라 친환경 패키징, 지속가능성 등 ESG 측면에서 산업적인 분야까지 총망라한다. △테이스트&웰니스(영양&건강, 대체단백, 정통식품) △뉴노멀(개인맞춤형 기술, 푸드테크, 스마트쿠킹) △지속가능성(스마트팜, 푸드 업사이클링) 등 세 분야로 나뉘어 기존 CJ제일제당 사업과 시너지를 꾀하는 한편 뉴노멀 분야의 기술을 접목해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했다. CJ제일제당은 이를 위해 3월 식품전략기획실 산하에 사내벤처캐피탈 역할을 하는 뉴프론티어팀을 신설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찾을 스타트업을 발굴해 신사업을 모색한다"라면서 "신설한 뉴 프론티어팀의 주요 관심 분야 역시 대체단백질, 건기식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펀드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미래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푸드는 이날 당일배송 전문 스타트업 '프레시코드'와 손잡고 'Chefood(쉐푸드) 세븐데이즈 플랜' 식단관리 도시락 7종을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레시코드는 과거 롯데그룹이 운영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엘캠프(L-CAMP)에 선정돼 롯데벤처스로부터 2018년 투자를 받기도 했다. 이번 협력으로 롯데푸드의 제품력과 프레시코드의 혁신적인 유통서비스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엘캠프'의 확장 버전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 전문 육성 프로그램 미래식단(未來食團)을 출범시킨 바 있다. 지원가능한 스타트업의 분야 역시 △Future Food(현재 식음료 대안) △Medi Food(식의약, 기능성 식품) △대체 식재료(식재료 수급과 환경 문제 해결 대안) △패키징(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포장재) 등으로, ESG 경영과 맞닿아 있다. 지난달 지원받은 스타트업은 현재 심사단계에 있다. 앞서 롯데푸드와 롯데중앙연구소는 식물성 기반 대체육 시장의 성장성과 중요성에 공감해 '제로미트'를 선보이는 등 원천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추진해왔다.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해온 농심 역시 스타트업 육성 전문업체인 '퓨처플레이'와 손잡고 '테크업플러스'를 2018년 이후 3년째 진행 중이다. 특히 3기 모집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으로 헬스케어 등을 비롯해 밸류체인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밸류체인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과 손잡을 경우 ESG 가치를 확 끌어올릴 수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식품기업들이 미래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건 이들 스타트업이 지닌 시스템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대체육 등 미래푸드를 개발하거나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공정으로 개선 등을 통해 ESG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빈티지 시계 구경 오세요"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 '파네라이' 야외 팝업스토어 및 마스터피스존 전시를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일반 매장에서는 볼 수 없는 단종된 빈티지 시계들을 전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1956년 당시 이집트 해군에 납품한 제품을 재해석한 '이기지아노' 모델이 있다. 이 상품은 전 세계 500점만 출시했던 한정판 상품이다. 이외에도 △루미노르 마리나 △섭머저블 3 데이즈 세라미카 등 빈티지 시계 애호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특별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갤러리아백화점

속옷·껌까지 품은 수제맥주

CU '백양BYC 비엔나라거' 세븐일레븐 '쥬시후레쉬'이어 '스피아민트맥주' 출시 계획

속옷 전문업체와 껌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편의점 업체들이 이종업체와 컬래버레이션(이하 컬래버)을 통한 수제맥주 출시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편의점이 수제맥주 최대 판매처로 부상하고 있다. 이색 컬래버가 주는 신선함으로 MZ세대의 이목을 끌어 바이럴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U는 17일 이너웨어 전문기업 BYC, 오비맥주와 손잡고 수제맥주 '백양BYC 비엔나라거'(500ml 2500원)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CU는 제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수제맥주 강자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을 세웠다.

CU가 지난해 대한제분 등과 협업해 내놓은 곰표 밀맥주는 품귀 현상까지 빚으며 매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고, 나아가 편의점 수제맥주 전성시대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CU가 협업하는 BYC는 '하얀 난닝구'로 대표되는 75년 전통의 기업이다.

백양BYC 비엔나라거는 오비맥주의 수제맥주 협업 전문 브랜드 '코리아 브루어스 콜렉티브(KBC)' 소속인 윤정훈 브루어마스터를 비롯한 수제맥주 전문가들이 수개월의 연구 끝에 출시한 야심작이다. 윤 브루어마스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맥주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인 수제맥주의 권위자다.

이 상품은 붉은 호박색과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다. CU는 비엔나 커피처럼 부드럽고 풍부한 비엔나라거의 거품이 BYC의 심볼 백양의 부드러운 양털을 연상시켜 이번 컬래버를 제안했다.

상품 패키지는 BYC가 1980년대에 사용하던 사명 백양과 심볼 백양을 그 시절 폰트와 이미지 그대로 활용했다.

세븐일레븐의 수제맥주 매출을 이끄는 것도 컬래버 상품이다. 이달 들어 13일까지 세븐일레븐 수제맥주 매출은 전년 대비 204.1% 늘었다. 그 중심엔 컬래버 수제맥주가 있다.

세븐일레븐 수제맥주에서 가장 판매가 높은 상품은 3월 선보인 '쥬시후레쉬맥주'다. 라거 타입의 '쥬시후레쉬맥주'는 쥬시후레쉬 껌 원액을 그대로 담아 향긋한 과일향과 청량감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은 국민 장수 껌 컬래버 2탄으로 이달 말엔 '스피아민트맥주'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더쎄를라잇브루잉과 함께하는 세 번째 전략 상품으로 라거 베이스에 민트 향을 첨가해 청량감을 극대화한 맥주다. 특히 민트는 최근 MZ세대가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로 튼튼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GS25는 8번째 차별화 수제맥주로 북유럽 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디스크(Nordisk)'와 컬래버레이션 진행한 '노르디스크맥주'를 지난 10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초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초도 물량으로 준비한 60만 캔이 최초 발주 이후 3일 만에 소진됐다는 게 GS25 측의 설명이다.

'노르디스크맥주'는 라거타입 수제맥주로 100% 몰트에 노블홉(Noble Hop)을 사용했다. 노블홉 특유의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꽃 내음이 맥아의 단맛과 균형을 이뤄 부담없이 즐기기 좋은 맥주로 탄생됐다.

생산은 오비맥주의 맥주 생산 기술을 접목한 수제맥주 협업 전문 브랜드 KBC가 맡았다. 가격은 3500원이며, 4캔 1만 원 행사를 실시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맥주 인수 이어 간편식… 교촌의 이유있는 도전

프레시지와 '통순살치킨' 출시 신사업 통해 매출 5000억 기대

치킨프랜차이즈 최초 매출 4000억 돌파, 프랜차이즈업계 최초의 직상장 신화 주인공인 교촌치킨이 실험적인 시도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1등 기업은 도전보다는 수성에 방점을 찍기 마련이지만 교촌은 후발주자보다 활발한 도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제맥주 기업을 인수하는가 하면 베이커리 전문점, 밀키트 기업 등과 협업해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최초로 매출 5000억 시대를 열 준비가 한창이다.

교촌F&B는 밀키트 전문기업 프레시지와 협업해 '교촌 통순살치킨' 제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간편식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사는 이번에 출시되는 '교촌 통순살치킨'을 시작으로 교촌 F&B의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간편식 제품을 지속적으로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교촌 통순살치킨'은 프레시지와 교촌F&B가 공동개발한 제품으로 프레시지의 상품 기획·유통 역량과 교촌F&B의 30년 기술과 품질 노하우가 결합한 제품이다.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사용해 한 입에 먹기 좋게 손질했으며, 교촌의 염지방식을 사용한 닭가슴살을 비법 파우더로 두 번 튀겨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장점이다.

교촌은 또한 수제맥주 기업을 인수하며 '치맥' 신화를 쓸 채비도 마쳤다. 교촌은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브루잉'을 운영하고 있는 인덜지와 수제맥주 제조 사업을 위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치맥(치킨+맥주)' 문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최초로 매출 4000억원 대를 넘어선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힘입어 올해 또한번 새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 1분기 교촌은 연결기준 매출액은 123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2분기 매출이 1분기를 넘어선다는 전망 아래 교촌이 이르면 올해 연 5000억 원 매출 기록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신세계인터내셔날 "배송 포장재 모두 종이로"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와 부자재를 종이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부흥하면서 비닐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포장자재 혁신에 나섰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 상자를 비롯해 모든 포장재와 부자재는 산림관리 친환경 인증 소재로 생산한 종이를 사용한다. 충격 완충재, 비닐 에어캡과 소포장에 사용하는 비닐 파우치를 모두 종이 소재로 변경한다. 기존 비닐 박스 테이프 또한 종이 테이프로 바꾼다. 모든 종이 소재는 100% 재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처리 없이 종이류로 쉽게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다만 비와 눈 등에 젖을 우려가 있는 의류 상품에 한해 소포장 폴리백(비닐 포장백)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폴리백도 앞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재생 소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배송은 16일부터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를 통해 발송되는 모든 자사 브랜드 제품에 도입되며, 안전 포장 봉투의 경우 기존 재고 소진 후 차례로 적용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번 종이 포장재 전환을 통해 연간 약 50톤 이상의 비닐 폐기물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개미가 돌아왔다" 삼성전자 박스권 탈출 기대감

주가 횡보·증권사 목표주가 하향에 '개미 순매도 1위' 외면받다
매수세 돌아서며 순매수 6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긍정론"

코스피 지수가 한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대장주인 삼성전자만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초부터 이어져 온 개미(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다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들어 지난 11일까지 삼성전자 주식 누적순매도세를 기록했지만 전날부터 순매수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가도 지난 3일 이후 전날까지 단 한번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지만 이날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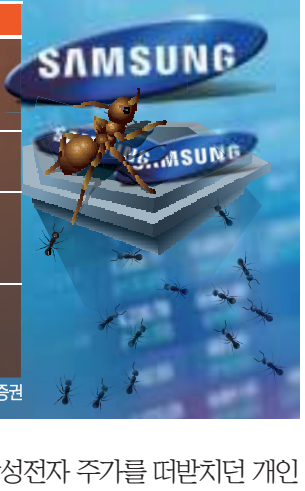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압도적으로 개인의 순매수 1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달 들어 지난주까지 순매도 1위 종목으로 등극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초부터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지난달에는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단기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지자 일부 개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8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7618억 원 순매도했다. 하지만 9일부터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며 전날 누적 순매수 금액이 이달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오늘은 순매수 금액이 1197억 원까지 늘었다.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개인의 삼성전자 누적 순매수 금액만 881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누적 순매도 금액 1위에서 단숨에 순매수 6위로 뒤바뀌었다.

6월 투자자별 삼성전자 누적 순매수 금액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1일	-137820	2541	132554	180055
2일	-193385	133268	57020	152601
3일	-1002578	567730	431481	363711
4일	-876154	644142	225309	192414
7일	-756373	525009	220022	228003
8일	-761795	439639	309586	338027
9일	-583288	482189	76984	244545
10일	-424563	680955	-281420	27356
11일	-176772	436607	-319456	28355
14일	86407	356045	-505248	-48098
15일	119721	390827	-574604	-64743

※출처: 키움증권



외국인의 경우 5월 한 달 동안 단 4거래일을 제외한 15거래일 동안 매도로 일관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순매수 금액을 3560억 원이다.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금액 1위다. 하지만 상승세는 많이 꺾였다. 6809억 원까지 올랐던 누적 순매수 금액은 15일 종가 기준 3908억 원으로 상당부분 줄었다.

이처럼 삼성전자 주가를 떠받치던 개인투자자들이 돌아오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재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업황이 '슈퍼사이클'을 맞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긍정론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 주가가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한된 D램 공급 증가가 지속되고 3분기 모바일 중심으로 D램 가격이 올라 D램 가격이 당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3분기 반도체 부문의 추가적인 실적 추정치 상향이 이뤄질 것인데 추가적인 고정거래가격의 상승으로 현물가격과의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외국계 증권사인 노무라증권 역시 최근 반도체업종에서 D램과 낸드(NAND)가 저점을 지난 만큼 2023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반도체의 공급과잉의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남대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9만5000원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유로 "세트 사업부의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 경쟁 환경 악화, 이윤창출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른 2022년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금융당국 '전환사채 리픽싱 제도' 보강 속도

전환가액 상향 근거 마련 주목
'주주 지분 희석' 악용 등 예방
시장 건전성 상향 기대되지만
일부 업계 조달시장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리픽싱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업계 반응을 살핀 후 이르면 3분기 내 수정된 리픽싱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건전성 향상을 내세웠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조달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전날까지 증권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 3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 전환사에 대한 공시 강화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에서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 한도 제한 △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등이다.

증권가에서는 전환사채 전환가액 상향 근거 마련에 주목하고 있다.

전환사채는 전환 시기가 되면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사채을 의미한다. 이자율·만기가 정해졌으며,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그간 채권자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전환가액을 낮추고 주식 수를 늘려 투자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발행 시점 가격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더라도 리픽싱 조항에 따라 한번 떨어진 전환가액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이에 채권자는 주가 변동 폭이 클 경우, 더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불공정 거래에 전환사채 리픽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린 후 전환가액을 낮추고, 주식 수를 늘려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주들은 그만큼 지분 희석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불법·불건전 행위가 반복되자 지난해 10월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관련 안건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일부 증권사 IB 부서에서는 내달을 기점으로 리픽싱 조항이 삭제된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전환사채 이율을 훨씬 높여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른 시일 내 투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은 회사 규모와 자금 여력에 따라 채권발행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메자닌 채권 투자자들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면서도 법안 시행 이전에 투자처를 늘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리픽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을 방어하기 어려워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며 "현재 시장에선 소화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금리 인상 이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이율 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환사채 리픽싱을 악용한 사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현재 입법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인아 기자 ijh@

FOMC 앞두고 날아오르는 증시

'긴축 없을 것' 낙관론 퍼지며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경신

전 세계 증시의 발목을 잡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힘이 다소 약해졌다.

15~16일 예정된 6월 회의를 앞두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회복했고, 국내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5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3258.63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장 중 3262.80을 기록해 올해 1월 기록한 장 중 최고치에도 바짝 다가섰다.

이는 과거 FOMC를 앞둔 시점에서 보합권을 유지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미국 증시에서도 FOMC를 결과를 의식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FOMC 전날임에도 미국 대표적인 빅테크기업인 애플(+2.46%), 마이크로소프트(+0.78%), 구글(+0.77%), 아마존(+1.11%), 페이스북(+1.66%) 등은 일제히 올랐다. 이번 FOMC에서 긴축이 없을 것이란 강한 확신이 시장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7월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물가 상승이 구조적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 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여전히 높은 영역에 머물면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라 할 수 있고, 8월에 이르러 판단이 굳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재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좋은 고용과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이 테이퍼링의 배경이라면 중기적 시각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랠리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 산업재, 경기 베타가 높은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업종 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양호할 종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은 아직 테이퍼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빠르면 3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초에 테이퍼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표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5월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8%(전월 대비 +0.7%) 급등하며 블룸버그 컨센서스(3.4%, 전월대비 +0.4%)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감당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나중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는 4분기 이후 3%대 중반을 넘어서는 추세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무위험지표금리 9월 말 공개 목표"

예탁원, 산출·공시 시스템 맡아

금융위원회가 무위험지표금리(RFR) 선정을 끝내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활성화 수순에 돌입한다.

RFR 개발은 리보금리 조작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 등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예탁원은 오는 9월 말 공개를 목표로 RFR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예탁원이 올 3분기 말 RFR 산출 · 공시 시스템 공개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보완 등으로 늦춰질 수 있지만 연내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을 뜻한다. 2012년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를 계기로 주요국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RFR 개발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면에서 RP 금리가 지표금리로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은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RFR로 최종 선정하면서 예탁원이 RFR 산출·공시 임무를 맡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선 주로 중앙은행이 산출·공시 업무를 담당했지만 국내에선 전문기관인 예탁원이 수행한다.

예탁원은 RFR 관련 중요지표 산정 및 확정(산출), 중요지표 제공(공시)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당일 결제된 RP거래를 기반으로 익일 RFR을 산출·공시하면서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RFR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 정비에도 나섰다.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예탁원은 RFR 관련 신규 업무 수행 근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관리위원회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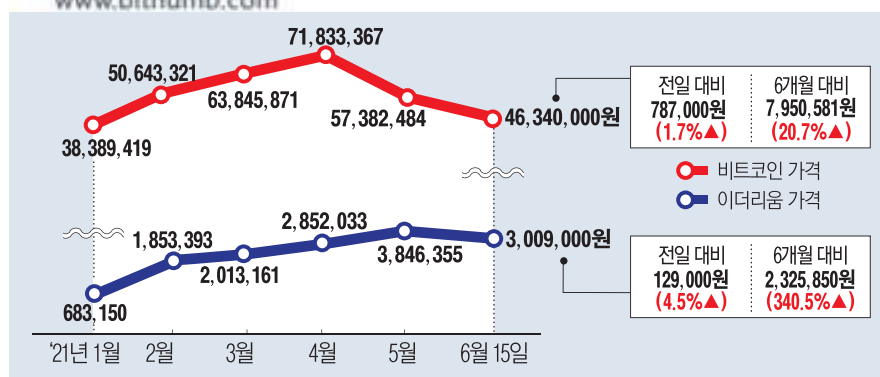
지난달 10일부터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을 통해 가공시에 나서기도 했다. RFR 산출방법론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사전에 검증하면서 시장 참가자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예탁원 관계자는 "RFR은 실거래 기반으로 금리 산출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없어 RFR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6월 15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741,500	36,500 (5.2%▲)	이오스	6,145	340 (5.9%▲)
리플	1,024	17 (1.7%▲)	트론	83	1 (1.2%▲)
라이트코인	205,500	11,200 (5.8%▲)	스텔라루멘	400	11 (2.8%▲)
에이다	1,833	61 (3.4%▲)	비트코인에스브이	199,900	3,800 (1.9%▲)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재건축 바람’ 거센 도봉구 예비안전진단 신청 잇따라

창동주공1단지·방학동 신동아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 시작
정밀진단 추진 단지도 ‘수두룩’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 “집값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것”

서울 도봉구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명	가구수	준공연월	예비안전진단 현황
신동아1단지	3169	1986년 12월	신청
창동주공3단지	2856	1990년 9월	추진
창동주공17단지	1980	1989년 7월	통과
창동주공18단지	910	1988년 10월	통과
창동주공19단지	1764	1988년 11월	통과
상아1차	694	1987년 11월	통과

서울 도봉구 일대 구축 아파트 시장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도봉구 창동과 방학동 내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넘기면서 ‘줄줄이’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나섰다.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더해 도봉구 창동 일대 개발 호재로 도봉구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주공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예비안전진단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1990년 지어진 아파트로 총 2856가구 규모다. 현재 창동주공3단지 재건축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약 500명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재건축 카페 가입자는 전체 소유주의 17% 수준으로 예비안전진단 신청 동의율(10%)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방학동 신동아1단지는 9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1986년 준공된 단지로 총 3169가구 매머드급 아파트다. 인근 J공인중개 관계자는 “신동아1단지는 물론 주변 아파트가 대부분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웠다”며 “앞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긴 단지들은 대부분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다. 창동 상아1차는 11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다. 창동주공17단지는 11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18단지와 19단지는 올해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 절차에 착수했다. 1단지와 4단지는 재건축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창동주공은 총 7개 단지로 이뤄져 있다. 모두 1988년과 1990년에 지어져 올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도봉구 내 재건축 사업 순항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몸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창동주공3단지 전용면적 79㎡형은 최고 12억 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 8억9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3억1000만 원 오른 셈이다. 방학동 신동아1단지 전용 84㎡형도 직전 실거래 가격보다 2억2000만 원 오른 8억 선을 호가한다.

앞서 창동주공19단지 전용 84㎡형은 올해 1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실거래가 10억 원(전용 84㎡형 기준)을 돌파했다. 이후 아파트값은 계속 올라 15일 기준 매도호가는 12억3000만 원에 달한다. 창동 T공인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창동주공17~19단지에선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도봉구 아파트값은 0.13% 올랐다. 서울 평균(0.1%)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봉구 일대는 재건축 사업 추진과 함께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창동역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C노선 정차역 건설 등 개발 호재도 안고 있어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부산 청약시장 흥행카드 ‘평지 아파트’

수영구 ‘힐스테이트 남천역’ 평균 경쟁률 525대 1 달해
이달말 분양 ‘한화 포레나 2차’ “평지 브랜드 대단지” 홍보전

한화건설 ‘포레나 부산덕천 2차’ 투시도

‘평지 아파트’가 부산 청약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는 지난해 말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평균 525대 1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109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5만7247명이 몰렸다. 역시 지난해 1301가구를 일반분양한 부산 사하구 장림동 ‘두산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에서도 1만3611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두 자릿수(10대 1)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아파트는 모두 평지에 들어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평지 아파트는 부산 청약시장에서 흥행카드로 꼽힌다.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희소성을 가진 데다 지하철도 평지를 따라 건설되는 일이 많아 생활 여건도 좋기 때문이다.

올해 분양한 평지 아파트인 동래구 안락동 ‘안락 스위첸’과 연제구 연제동 ‘연산 포레 서희스타힐스’도 청약 경쟁률이 각각 평균 60대 1, 81대 1까지 올랐다.

‘평지 마케팅’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도 평지 브랜드 대단지라는 점을 홍보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1차도 평지 마케팅으로 평균 경쟁률 88대 1로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2차엔 최고 26층 높이로 8개 동, 795가구가 들어선다. 부산지하철 3호선 숙등역과 도보로 3분 거리(100~200m)에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1차 단지 1순위 (청약)에 1만3611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대기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전국 주택 매매심리지수 6개월 만에 반등

지난달 5.4포인트 오른 133.8… 서울서 상승폭 키워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33.8로 전월(128.4) 대비 5.4포인트 올랐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지난해 11월(141.1)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5월 137.8을 기록하며 전월(129.8) 대비 8.0포인트 올랐다. 2월 140.8에서 3월 2·4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129.0까지 대폭 내렸으나 4월 소폭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상승폭을 더 키운 것이다.

4·7 보궐선거 이후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와 중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후보지 발표도 소비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5월 139.5로 전월(133.1) 대비 6.4포인트 올랐다. 지방은 5월 124로 전월(128)보다 4.0포인트 올랐다. 전북이 145.6을 기록하며 지방에서 지수가 가장 높았다. 비규제지역인 군산과 익산 등지에 투자 수요가 일부 유입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욱 기자 toto@

2·4 공급대책 주요 후속법안 ※ 출처: 국토부, 국회

분야	관련 법안	쟁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여부 (현금청산 등) – LH 등 공공기관 공공성 확보 방안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갈 길 먼 ‘2·4대책 후속법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열고 논의했지만 합의 난항
여야, 현금청산 등 이견 팽팽… 공공정비사업 차질 우려

국회가 2·4 주택 공급 대책 후속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과 후보지 내 주택 소유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을 논의했다. 국토위는 전날 한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속법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실제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전날 한 차례 논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특례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그대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전날 법안 합의가 완료됐다면 오늘 똑같은 법안을 재차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현금청산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2·4 대책 후속법안 논의 지연에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명확한 근거 없는 위헌 주장에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심사가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선 근거 법안이 필요하다. 민간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법안 위헌 논란 등으로 법안 통과는 계속 미뤄졌고 결국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일정에도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 일정이 8월로 미뤄졌다.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은 애초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법안 논의가 표류하면서 연기된 것이다.

여당으로선 야당과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측은 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위까지 법안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위는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개발이익을 단순히 LH에 귀속시키는 것만으로 사업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2·4 대책 발표일 이후 후보지 내 신규 매입 주택을 현금청산하는 조항에 대해선 “공공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자를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해당 법안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개나리주공13단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1기 신도시’ 산본 리모델링 속도

덕유8·설악8 등 사업 추진중

수도권 1기 신도시인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에 들어선 개나리주공13단지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산본신도시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달 28일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군포시청에 신청했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지난 3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40여일만에 동의율 67%를 달성했다. 지난달 22일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까지 열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말께 조합설립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 전환까지 마친 뒤 8월 초 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게 추진위 계획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는 1995년 11월 지어진 준공 26년차 아파트로, 최고 25층짜리 17개동에 1778가구로 이뤄졌다. 용적률은 약 200%다. 이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44가구의 대단지로 새로 태어날 전망이다. 새로 늘어난 266가구는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산본신도시에선 지난해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 리모델링 사업 조합을 처음으로 세웠던 우륵주공7단지(1312가구)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금정동 산본율곡(율곡주공3단지 아파트·2042가구) 역시 DL이앤씨에 시공을 맡기기로 했다. 우륵주공 7단지와 율곡주공3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각 1508가구, 2348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개나리주공13단지도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재 이 일대에선 덕유8단지, 설악8단지, 무공화 1단지 등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사업 기대감에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올들어 4억2000만~4만7700만 원에 거래된 개나리주공13단지 전용 58㎡형은 현재 매도 호가가 5억2000만 원까지 올라 있다. 전용 49㎡형의 올해 초 실거래가는 3억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달 4억1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최고 호가는 5억 원에 달한다. 인근 A공인 측은 “사실상 조합설립 완료 단계에 있어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인데도 매수 대기 중인 매물이 많지 않다”며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하면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부양의무 위반 땐 가정법원서 상속권 상실 여부 결정
자녀가 부모 용서하면 상속권 인정 ‘용서 제도’ 신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마침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구 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해 달라며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이뤄진다.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등에 대해서만 상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받아간 생모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다. 이 제도는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나 심각히 부당한 대우 등 을 한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재산을 물려받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대습 상속을 인정하면 사실상 상속권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은 ‘용서 제도’를 신설해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주택 정책 힘주고 도시재생 축소 ‘오세훈표 조직개편’ 시의회 통과

‘박원순 흔적 지우기’ 논란 일단락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조직개편과 인사,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로(1급)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안도 담겨있다.

그간 시의회 내부에서는 개편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표출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시의회 전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능 축소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도시재생 축소 등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10일에는 시의원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재차 연기됐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한 반대도 거셌다. 교육플랫폼추진단은 오 시장 공약사항인 ‘서울 런(Seoul Learn)’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서울 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서비스 콘텐츠 중 유명 강사·학원 강의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자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까지 나서 시의회에 결단을 촉구했다.

서공노는 “올해 하반기 승진·전보 등 인사 일정이 안갯속”이라며 “늦었지만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시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에서 일단 오 시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의견이 모인 것이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서 하반기 인사 일정과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민생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 안전한 도시, 도시경쟁력 재도약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회복에 3360억 원, 안심·안전에 5008억 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41년 만의 5·18 무명열사 확인 15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DNA 분석 결과 묘지번호 4-90번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신동남(1950.6.30 생) 씨임을 확인, 유가족이 묘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신동남 열사는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바 있지만, 지금까지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후원금 강요 무죄’ 김종 전 차관 구금초과 보상 323만 원 받는다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국가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 중 삼성 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죄 부분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21일 구속된 후 2018년 12월 9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 상태로 구금됐다.

김종용 기자 deep@

swanicoco

선케어는 스와니코코, 팩트를 체크해보자

진짜의 힘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SPF 조작 논란에도 굳건한 스와니코코
이젠 스와니코코에서 선케어 할 때!

스와니코코 올 데이 케어 프로바이옴 선 젤
인증받은 자외선 차단 지수 SPF50+ PA++++
150ml 3만5천원.

"코로나 이후 '수막구균감염증'도 백신으로 예방해야"

이해인 압구정 JM가정의학과의원 대표원장

수막염·패혈증 일으키는 중증 질환, 치사율도 높아
'전염병의 습격' 일상 속 손씻기 등 개인위생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전염병의 습격'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경각심을 갖게 했다. 지난 1년간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연습은 충분히 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다른 전염병의 습격을 막기 위해 일상 속 개인위생을 지키는 습관은 꾸준히 지켜져야 한다.

일상 속 전염병으로 꼽히는 것이 '수막구균 감염증'이다. 수막염균에 의한 급성 감염병으로, 주로 수막염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이다. 이해인〈사진〉 압구정 JM가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은 "수막구균 감염증은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감기몸살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수막구균이 혈액에 침입하면 패혈증이 발생하는데 수막구균 감염증의 40%가 패혈증을 앓는다. 패혈증 외에 수막구균 감염증의 절반이 겪는 증상은 균이 뇌까지 침입해 발생하는 뇌수막염으로 두통, 발열, 경부경직, 오심, 구토 등이 급격히 진행된다.

이 원장은 "문제는 성인의 5~10%는 수막구균 무증상 보유자인데 코나 입의 점액에 있던 수막구균이 작은 수포 또는 직접 접촉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수막구균에 감염됐을 때 증상은 대개 2~10일 안에 나타나고, 24~48시간 이내에 환자의 8~15%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 5명 중 1명은 뇌 손상, 청력손실, 영구 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에선 국내에서 매년 250~2000명 정도의 수막구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수막구균 뇌수막염 환자 수는 매년 15명 이하였다.

이 원장은 "수막구균 감염은 발병률이 낮아 정부 차원에서 백신을 필수 접종으로 편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병원에서 진료 시 환자에게 어떤 백신을 맞는지 체크하고 권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막구균 감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으로 막을 수 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될 경우 수막구균 감염 위험성은 외려 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실제로 수막구균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군대, 대학기숙사, 여행지 등으로 여러 지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이다.

이 원장은 "수막구균 감염은 공기 중 호흡기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신체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가 줄었다"며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손 씻기의 일상화가 무너지면 다시 수막구균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 원장은 "수막구균은 치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리면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코로나와 함께 묶어서 여러 전염성 질환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방탄소년단 '버터' 빌보드 싱글 차트 첫 3주 연속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두 번째 영어 곡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14일(현지시각) 빌보드는 BTS의 '버터'가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TS 곡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발표한 첫 영어 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1·2주 차에 1위를 기록하고 3·4주 차에 2위를 한 데 이어 다시 5주 차에 1위에 올랐다.

BTS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3주 연속 빌보드 1위라는 믿기지 않는 대기록을 만들어주신 '아미'(BTS 팬클럽)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빌보드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함께 빌보드의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힌다. '버터'는 높은 음원 판매량과 라디오 청취자 증가에 힘입어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이번 차트 집계 기간인 4~10일 '버터'의 음원 다운로드 횟수는 전주보다 1% 감소한 13만8400건을 기록했다. 이번 집계에는 4일 내놓은 두 가지 리믹스 버전의 판매량이 반영됐다. 원곡에 R&B 감성을 더한 '스위터'(Sweeter) 버전과 기타 사운드로 청량하게 편곡한 '쿨러'(Cooler) 버전이다.

김재영 기자 maccam@

정상영 KCC 명예회장 유산 민족사관高에 100억 기부

정몽진 회장도 사재 30억 출연

고(故) 정상영 명예회장 유가족 측과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최근 강원도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기금 약정식을 가졌다.

KCC는 15일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유가족·민족사관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기금 약정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 유산으로 마련한 기금 100억 원은 △역량 우수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분야별 영재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확충 및 연수 등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 기금과는 별도로 유가족과 KCC그룹 차원에서의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정몽진 KCC 회장은 민사고 설립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재 30억 원을 별도로 출연해 민사고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우수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김대영 기자 kdy@

탐사매체 "소득세 거의 내지 않았다" 보도에

머스크 "마지막 남은 집도 처분하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득세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에 남은 집 한 채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비트코인을 10%밖에 팔지 않았다는 해명에 이어 이틀 연속 저자세를 보이자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회복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남은 마지막 집도 처분하기로 했다. 그곳에 살 대가족만 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탐사 매체 프로퍼블리카의 보도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앞서 매체는 국세청(IRS) 자료를 인용해 머스크 CEO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이 보유 자산 대비 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2015년과 2017년에는 7만 달러 수준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비트코인은 전날에 이어 상승하며 4만 달러(약 4470만 원) 선을 회복했다.

전날 머스크 CEO는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재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미래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채굴자들의 합리적인(50%)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인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의 트윗이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테슬라는 시장을 흔들지 않고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0% 수준만 팔았다"고 해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저커버그, 핑크 플로이드 노래 사용 제안했다 굴욕

前멤버 로저 워터스 "페북이 세상 지배하려 해" 욕설과 함께 거부

마크 저커버그〈왼쪽 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전설적인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의 전 멤버 로저 워터스〈오른쪽〉에게 굴욕을 당했다.

뉴스위크는 14일(현지시간) 저커버그가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를 인스타그램 광고에 사용하겠다며 워터스에게 거액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워터스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지지 집회에서 이번 일과 관련한 저커버그의 제안과 자신의 대처를 소개했다.

저커버그가 광고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노래는 핑크 플로이드가 1979년에 발표한 앨범 '더 월'의 수록곡 '어나더 브릭 인 더 월 파트2'였다. 교육 등 기성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 이 노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저커버그는 엄청난 액수를 제시했다는 것이 워터스의 설명이다.

그러나 워터스는 알파벳 'F'자로 시작되는 욕설과 함께 "꺼져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워터스는 저커버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선 "페이스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는 그런 짓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내 노래를 이용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영국에서 출생한 워터스는 1965년 시드 배릿 등과 함께 핑크 플로이드를 결성했고, 1985년 탈퇴 전까지 사실상 리더 역할을 맡았다. 저커버그가 사용을 원했던 '어나더 브릭 인 더 월 파트2'가 담긴 앨범 '더 월'은 전 세계에서 3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 'ESG委' 신설 위원장에 신미남 사외이사 선임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엔솔은 전날 열린 이사회를 통해 'ESG위원회 설립'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종현 LG엔솔 사장 등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미남〈사진〉 사외이사가 맡기로 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성과 등을 분석한다. 이어 ESG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하면 수시 개최한다.

김대영 기자 kdy@

부음

한국전쟁 '마지막 미군 포로' 펀체스

6·25전쟁 당시 마지막 미군 포로였던 참전용사 윌리엄 H. 펀체스(93) 씨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14일 지역 언론 '타임스 앤드 데모크랫' 등에 따르면 펀체스는 클렘슨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해 미 육군 제24보병사단 19보병연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1950년 11월 평안남도 안주에서 중공군과 교전하다 기관총에 맞아 총상을 입고 생포됐다. 당시 중위 신분이었던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한 평북의 포로수용소에서 갇혀 지냈으며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1953년 9월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했다

'요술공주 샐리' 日 작곡가 고바야시

한국에서도 소개된 애니메이션 '요술공주 샐리' 주제곡을 만든 일본인 작곡가 고바야시 아세이(小林亞星)가 지난달 30일 심부전으로 도쿄 병원에서 88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도쿄 출신인 고인은 게이오(慶應)대학 재학 시절 재즈 밴드에서 활동하다가 졸업 후 본격적으로 작곡가의 길을 걸었다. CM곡을 비롯해 가요곡, 애니메이션곡, TV 프로그램 테마곡, 영화음악 등 전 생애에 걸쳐 총 6000곡 이상을 남겨 일본을 대표하는 작곡가 반열에 올랐다. 1970년대 옛 동양방송에서 '별나라 요술공주'로 처음 전파를 타고 KBS2 TV 등에서 재방영될 정도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요술공주 샐리' 주제곡이 고인의 유작이다.

▲**김현주** 씨 별세, **최락현**(나우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이안**(동현회계법인 회계사)·**시연** 씨 모친상, **이광윤**(신한은행 홍보부 차장) 씨 장모상, **오현주** 시모상 = 15일,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2290-9442

▲**이순행** 씨 별세, **김현수**(롯데렌탈 대표이사) 씨 모친상 = 15일, 경북 군위농협 장례식장 특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54-383-2990

▲**이영숙**(전 학교법인 제한학원(대구한의대) 이사장) 씨 별세, **변정환**(제한한의원 원장) 씨 부인상, **변성희·준석**(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창훈**(대구한의대 총장)·**귀남** 씨 모친상, **박찬우**(박가한의원 원장) 씨 장모상 = 14일, 계명대 동산병원 장례식장(백합원) 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53-258-4451, 4461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장 김동환 ◇과장급 전보 △검역정책과장 변상문 ◇과장급 명예퇴직 △명예특진 장재홍

◆**한양증권** ◇부서장 신규 보임 △부동산구조화금융부 박준형

◆**아시아투데이** △탐사보도부장 박병일

◆**뷰어스** △산업국장 최성필

◆**뉴스저널리즘** △산업부장 김국헌 △금융증권부장 차진형

미국은 지금

미국의 4대 핵심 산업 공급망 재건 청사진

김 수 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

삼성전자는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위해 170억 달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생산과 수소 인프라 등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배터리 부문에서 SK는 포드자동차와, LG는 제너럴모터스(GM)와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이다.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 위기는 미국 공급망의 구조적 약점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공중 보건과 경제 위기로 인해 증폭되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해외 공급에 의존해 온 정책 선택은 다양한 부문과 제품에 걸쳐 취약한 공급망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정부는 공급망과 인프라에 대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및 활성제약성분, 희토류 광물 및 원료 등 4개 산업의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였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서 확인된 위험과 취약성은 반도체가 국가안보, 산업경쟁력, 일상생활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를 너무 많이 아웃소싱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약 750억 달러를 직접투자 형태로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첨단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지원하고 R&D를 촉진하기 위해 의회에 최소 500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및 공급업체와 최종 사용자 간의 정보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용량 배터리는 전기자동차부터 에너지 저장장치와 방위산업 응용제품에 이르기까지 청정에너지 전환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에너지부는 미국 전역에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국내 리튬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가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 차량 제조 대출 프로그램에서 약 170억 달러를 즉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에 대한 대출과 미국 내 생산시설을 재설치, 확장 또는 신설하는 투자도 포함된다.

미국은 상당한 종류의 의약품과 활성제약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제 의약품의 주요 원료인 API는 생산시설의 약 87%가 중국, 인도와 같은 해외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필수 의약품 공급망은 취약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방생산법에 따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필수 의약품의 국내 제조를 추진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API의 국내 제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생산법에서 약 6000만 달러를 조기에 투입한다.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희토류 광물과 원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중요한 광물자원의 가치사슬 중심에 있고, 글로벌 자원 정제 프로세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공급 원천을 다양화하고 국내 추출을 늘리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무부는 백악관, 농무부, 환경보호국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과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생산 및 가공설비를 짓기 위해 최적 입지를 찾고 있다.

4대 핵심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청사진은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첫 걸음이다. 미국은 혁신적인 리더십을 강화하고, 주요 산업 부문과 가치사슬에서 공급망을 재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 미국은 비교할 수 없는 대학 및 연구 시스템, 숙련되고 다양한 인력 풀, 혁신적인 기업가와 중소기업 생태계,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진 글로벌 리더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는 산업, 노동,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공급망을 재건하고 광범위한 성장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위해 170억 달러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생산과 수소 인프라 등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예정이다. 배터리 부문에서 SK는 포드자동차와, LG는 제너럴모터스(GM)와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와 재계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전략 수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과학 놀이터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 난 영
과학 칼럼니스트

지금은 종방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챙겨보던 티브이 방송이 있다. 통칭 연예인이라 불리는 배우나 가수, 개그맨 등이 1인 도전자로 등장해 100명의 일반인 출연자들과 퀴즈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늘 상식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1인이다. 그때문인지 방송을 보며 이런저런 소소한 지식들을 소위 '줍줍'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1인 도전자로 나온 이들은 탈락의 고비가 왔을 때 세 번 찬스를 쓸 수 있는데, 이 서로 다른 형태의 도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걸 보는 것 역시 대단히 흥미로웠다.

사실 방송만 아니라면 퀴즈처럼 정답이 있는 경우엔 그저 인터넷 사이트 한두 곳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인생살이의 경우 어디서 이런 똑똑한 한마디를 구할지가 참 고민일 때가 많다. 그리고 막상 인생 조언이 있어 그걸 찾는다 해도 사람들이 반드시 그걸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다른 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까? 그리고 어떤 조언을 따를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조언을 따르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최근 발표된 독일 괴팅겐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마스 슐체-게어라흐 박사 연구팀의 '의사 결정에서 다른 이의 조언이 미치는 영향'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임의의 두 지역을 주고 이 지역 간 거리를 추정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때 일명 판사-고문 시스템(Judge-advisor system, JAS)이란 이론에 기초해서 한 사람은 결정에 필요한 조언, 정보 또는 제안을 제공하는 고문 역할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정보를 평가하고 결정 과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즉, 실제 의사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판사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에게 있다. 조언이 결정에 미치는 정도는 판사 역을 맡은 사람들의 추정치가 조언을 듣기 전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통해 측정됐다. 그 결과 조언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30퍼센트에 불과했다. 즉,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더 큰 신뢰를 갖고 이에 기초해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더 의지하는 경향은 목표 지향적이고 독립적인, 즉 독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흥미로운 건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한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조언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례로 기업의 대표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책임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이룰 기회로 인식할수록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조언을 구할 때에도 자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만 선호한다고 한다. 특히 시장 가치가 낮은 회사의 대표일수록 더욱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알 만한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말을 내뱉는 상황들이 새삼 이해되는 대목이다.

사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에 맞지 않는 조언이나 의견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중심적 편향'을 보이는 건 흔한 일이다. 이는 자아를 만족시키고 기억 강화에 유리한 심리적 필요 때문에 선택되는 전술이란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이의 말을 잘 가려서 듣고 여기에 기초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이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쯤 되면 올바른 조언을 찾고, 또 이를 잘 받아들이는 건 예술 행위에 비교될 만하다.

50인의 답! 우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방식의 찬스 형태다. 1인의 도전자를 탈락의 위험에서 구해 준 일등공신이 이 방법이었다는 게 새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기자수첩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김 동 효 부동산부/sorahosi@

'환골'은 뼈를 바꾸는 일이고, '탈태'는 태를 벗는 일이다. 미온적 변화가 아닌 모조리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 단골처럼 등장하는 사자성어가 '환골탈태(換骨奪胎)'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이 사자성어는 줄기차게 등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준 LH 사장이 약속이나 한 듯 이 말을 꺼냈다.

땅 투기 의혹 100일 만에 나온 LH 혁신안은 볼품없었다. 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넘기고, 1만 명에 달하는 LH 전체 직원 중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는 게 전부다. 혁신안의 핵이었던 조직 개편은 3개안만 내놓은 채 매듭도 짓지 않고 8월로 미뤘다.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 수준의 개편은 없었다. 내놓은 대안마저 지금의 조직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한 쇄신안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노 장관이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LH의 환골탈태도 필요하지만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쇄신보다 공급에 방점이 찍힌 대목이다.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집값 급등에 대한 좌절과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실망이 뭉쳐져 분노가 되면서 민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83만 가구 공급 속도도 절실하다. 조직의 기능이 흩어지면 공공 주도 공급 지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제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선 헐겁게 죄어진 나사부터 돌릴 필요가 있다. 회복되지 않은 신뢰감은 공급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다.

8월에 있을 조직 개편안에선 '해체 수준'은 아니더라도 설득력 있는 환골탈태가 나와야 한다. 조직 해체가 정답은 아니지만 혁신안을 만든 고민과 고통의 무게가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보다는 여전히 가벼워 보인다. 뼈를 깎는 일엔 고통이 뒤따르고, 이를 감당할 인내가 필요하다. 세상에 가벼운 환골탈태는 없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악셀 옥센셰르나 명언

"아들아, 이 세상을 얼마나 하찮은 자들이 다스리는지 똑똑히 알아두거라."

스웨덴의 정치가, 총리. 구스타브 2세 국왕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 그는 '의회법'을 공포하여 의회 구조를 안정시켰다. 외교관으로서 수완도 뛰어났던 그는 알트마르크 휴전조약과 30년 전쟁을 종식한 베스트팔렌조약 체결 시 자국이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힘썼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583~1654.

☆ 고사성어 / 마호체승(馬好替乘)

역마(驛馬)도 갈아타면 낫다. 낡은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새것은 더욱 좋다는 말이다. 사물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며 새것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는 뜻이다. 출전은 조선조때 나온 편자(編者) 미상의 한문 속담집 동언해(東言解).

☆시사상식/사이버머니(cyber money)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자사 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실제 현금으로는 교환할 수 없지만 보통 사이버머니를 주는 사이트 내에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사이버머니 은행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여받은 사이버머니인 적립금이나 점수를 원화 단위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 이곳에 사이버머니를 예치해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 고운 우리말 / 주접

사람이나 생물이 탈이 생기거나 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일을 말한다.

☆ 유머 / 노인의 판단

정기국회가 열리는 날. 노인이 의사당 정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려 하자 경비가 뛰쳐나와 "오늘은 의원님들이 모처럼 만에 모두 나오시는 날입니다"라며 못 세우게 제지했다. 노인이 경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하덜 말어! 이 자전거는 자물쇠가 튼튼헝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사회경제부 (02)799-2612
부동산부 (02)799-2637
디지털미디어부 (02)799-2643
국제경제부 (02)799-6741
산업부 (02)799-2644
사진영상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똥국과 고순조

데스크칼럼

배 수 경
디지털미디어부장

"똥국이요? 고순조, 고순튀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요."

얼마 전 전역한 젊은 친구는 최근 군에서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 얘기를 하다 치를 떨었다.

여기서 '똥국'이란, 군대 급식 메뉴 중 된장국을 비하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된장국, 된장찌개라고 하면 감자와 양파, 호박, 고추, 버섯 등 갖은 채소가 들어가지만, 이들이 말하는 군대 급식 된장국은 멀건 된장 국물에 건더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단다. 그래서 먹는 음식임에도 그런 저급한 별명이 붙었다.

'고순조'와 '고순튀'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들에겐 생소한 단어다. '고순'은 '고등어 순살'의 줄임말. '조'와 '튀'는 각각 조림과 튀김을 의미한다. 둘 다 대량 급식에 적합한 조리법인데, 주부들은 다 안다. 생선이란 것이 아주 까다로운 식재료여서 조금만 조리를 잘못해도 역한 비린내 때문에 비위가 상할 수 있다는걸.

군에 대한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군에선 제조된 지 수십 년은 족히 됐을 법한 수통과 반합에 물과 밥을 담아 먹게 한단다. 모포도 제조연도를 알 수 없을 만큼 낡은 것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다. 군 장병들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간부"라고 답한단다. 군대 내 계급 간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간부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자신들의 뒤통수에 총알이 박힐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로 한단다. 바로 자신의 부하에 의해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해외에선 아이언 맨이 날아다니고, 우주에선 땅따먹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공방전을 치르고 있으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잇따른 군 생활 폭로에 대해 "군에 스마트폰이 보급된 게 문제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 나 때는 말이야"란 말이 나온다. 시대착오적이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MZ'라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당황하고 있다(MZ세대의 정의는 익히 나왔기에 설명 생략). 단지, 군이 다른 조직보다 이들의 존재를 늦게 체감했을 뿐이다.

인권에 민감하고, '플렉스'와 '미닝아웃'이 일상인 이들에게 상명하복식의 군대는 매우 낯선 시스템일 것이다. 그동안 군에 대해선 '군에서 일어난 일은 군에 머문다(What happened in the army, stays in the army)'란 표현처럼 폐쇄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대표적인 게 법 체계다. 사회와 달리, 군에는 별개의 법 체계가 있다. 군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재판과 심판, 처벌까지 전부 그 안에서 처리된다. 담장 밖에는 꽁꽁 숨긴 채. 그래서 군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과거완료형이다. 세상에 드러났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쉬쉬하다가 뒤늦게 들쑤셔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처럼 말이다.

'MZ세대'와 '꼰대'라는 편견적인 용어를 만들어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큰 문제다. 어느 조직이든 자유와 책임은 따르기 마련인데, 이 두 개념 사이에 MZ니 꼰대니 세대를 규정짓는 꼬리표가 끼어들면서 마땅히 물어야 할 책임마저 세대 간 갈등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에서 기본권 문제와 세대 간 갈등으로 위계 질서가 흔들린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화로 징병제 유지가 위태로워지면서 모병제 논의가 피어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원치 않는 징집으로 병역기피 문화가 만연한데, 사회에 못 미치는 열악한 생활 환경과 계급 간 갈등, 폐쇄적 병영문화까지 계속된다면 누가 자원해서 입대하려 할까.

징병제든 모병제든 우리 군에 필요한 건 투명성과 트렌디한 병영문화다. 군대 담장 밖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군복 디자인을 아무리 현대식으로 바꾼들 시대착오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계속된다면 신세대 장병들의 고발은 계속될 것이다. 똥국, 고순조를 더는 군대 무용담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sue6870@

노트북을 열며

K방역에 이은 K백신

박 병 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6월 초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 현장에 방문했다. 이 소식을 듣고 '산업부가 백신 현장에는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면 이해가 되지만 얼핏 보면 산업부는 백신과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신도 제조의 영역에 걸쳐 있다'라는 공무원의 말에 바로 수긍이 됐다.

산업부는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왔다. 2020년 10월부터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국내 기업의 동물세포 기반 백신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해 최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신 부족으로 세계 각국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백신 임상시료 생산은 큰 의미가 있다. 인류를 위해 백신 개발과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부차적이지만 이를 통해 코리아(KOREA)의 국격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이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 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해 사용될 시료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 종식과 우리나라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하에 국내 개발 기업을 지원 중"이라며 "산업부에서도 센터의 기능을 제고해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곳곳에서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을 당시 우리 K방역은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자가용을 타고 차 안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K방역은 세계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찬사를 받으며 K방역을 각국에 전파했다.

방역에 이어 이번엔 백신으로 코리아가 지구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량을 강조하며 파트너십을 역설했다.

한국의 백신 생산에 대한 신뢰성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증명된 인정된 사실이다. 22일(현지시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원활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속에서 뿌듯한 자긍심이 일어났다. 백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등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세계 각국은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있으면 구호물자를 보내고 평상시에도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지구촌을 실천하고 있다. K방역에 이은 K백신으로 코리아가 인류에 다시 도움을 주며 각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riby@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지난달 취업자수가 61만9000명 늘어나는 고용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체 고용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 3000명에 달해 2000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이 규정한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8년 3월(115만2000명) 이후 계속 100만 명대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으로 대체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이런 추세가 가속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코로나 이후 급격히 줄었던 취업자가 올해 3월부터 증가로 돌아섰음에도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늘어난 취업자도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다. 5월 취업자 증가 수치 61만90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만2000명이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3월에 47만2000명으로 최대였고, 4월에도 41만7000명이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일자리 상황만 더 나빠지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 수치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또 내년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위한 두 자릿수 인상을 벼르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인상되면서 일자리가 각각 15만 9000개, 27만7000개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14.7% 오를 경우 사라지는 일자리가 그런 규모라는 것이다.

결국 고용을 살리려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가장 시급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기업활력 제고와 규제 철폐를 통한 투자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실질적인 고용회복과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다.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정책적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진료실 풍경

기억의 덫

산속에서 세 사람의 시체가 발견된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무당을 통해 셋의 영혼을 불러 진술을 듣는데, 각자가 호소하는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져든다. 각각의 피의자가 진실이라 주장하는 진술만 남긴 채….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의 줄거리이다.

"엄마가 저에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할 거면, 차라리 나가서 몸이나 팔라고 했어요. 어떻게 친엄마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지금 엄마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억울하다, 네가 미쳤다'며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종종 접하는 풍경이다. 특히, 가족사에서 구성원들 간의 기억이 달라 발생하는 갈등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최근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로 기억에 관한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기억은, 적어도 사람의 기억은 일종의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유연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알게 모르게 조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내용이 첨가되고 주변의 암시, 개인의 선호도, 성격 특성에 영향을 받아 기억은 그럴듯한 개연성 있는 일화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도 세 살 무렵 욕조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던 기억이 크게 남아 있어 물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있는데, 네 살 이전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필시 부모님들이 그 상황을 계속 일러주셨을 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생생한 기억으로 재구성했으리라 본다.

기억이 모여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그런 기억이 믿을 수 없다면….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無我)'라고 하였는지도…. 과거에 집착하면 '우울감'이 오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감'이 오기 쉽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것은 그것뿐이니까.

최영훈 닥터최의연세마음상담의원 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늘의 안심이
내일로 이어지도록
내일의 희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KB금융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어
작은 일도 큰일도 함께 지켜주니
일상도, 일생도 든든합니다

오늘의 안심부터
내일의 희망까지
보험도 역시 KB

우리 가족
평생 든든하도록
믿음직한 파트너와
일상부터 일생까지
함께 해요

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은퇴 후 버킷리스트
실행 자금을 마련해요

좋은 습관은
키울 수 있도록
안전주행으로
보험료 혜택을 받아요

보험이
더 쉬워지도록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푸르덴셜생명 12년 연속 '좋은 생명보험사' 1위
금융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좋은 생명보험사' 평가에서 건전성,
수익성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며 12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 | 푸르덴셜생명 | KB생명보험 | KB국민은행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타시스템 | KB신용정보

KB금융그룹